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를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89호

Monday, August 19, 2024 A

당뇨·관절염 등 약값 79% 인하

메디케어 수혜자에 처방약 10종
2026년부터... 3년후 20종 확대

오는 2026년부터 주요 처방약품들의
가격이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큰 폭으
로 인하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4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약값 인하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약값 인하나 적용되는 치료제는 한
인 시니어들도 자주 찾는 류마티스 관
절염 치료제 ‘엔브렐’과 ‘스텔라라’, 그
리고 심부전과 당뇨, 만성 신장 질환 등
에 쓰이는 ‘자디앙스’, ‘파시카’ 등이 포
함됐다. <표 참조>

또한 혈전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는
‘엘리퀴스’와 ‘자렐토’, 당뇨 치료에 쓰
이는 ‘자누비아’, ‘피아스프’ 등 인슐린,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 등 총 10
종이다.

지난달 30일 처방기준 인하율은 약물
가격표에 표시된 가격 대비 38~79%다.

특히 당뇨 치료제 자누비아의 경우
527달러에서 113달러로 79%(414달러
인하)나 내렸다. 또한 400만명에 가까

IRA 약값 인하 대상 10개 의약품 목록 (7월30일 처방기준 가격)

의약품명	치료 증상	2023년	2026년
Eliquis(엘리퀴스)	항응고제	521달러	231달러
Jardiance(자디앙스)	심부전, 당뇨, 만성 신장 질환	573달러	197달러
Xarelto(자렐토)	항응고제	517달러	197달러
Januvia(자누비아)	당뇨	527달러	113달러
Farxiga(파시카)	심부전, 당뇨, 만성 신장 질환	556달러	178.50달러
Entresto(엔트레스토)	심부전	628달러	295달러
Enbrel(엔브렐)	류마티스 관절염 등	7106달러	2355달러
Imbruvica(임브루비카)	혈액암	1만4934달러	9319달러
Stelara(스텔라라)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등	1만3836달러	4695달러
Fiasp(피아스프) 등 인슐린	당뇨	495달러	119달러

자료: CMS

운 메디케어 가입자가 처방받는 항응
고제 엘리퀴스도 521달러에서 231달러
로 56%(290달러 인하) 줄었다.

지난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한 IRA에는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제약회사와 협상
을 통해 처방약품 가격을 인하한다
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수십 년 동안 연방정부는 제약회사
와 약값을 놓고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
어 있었지만, IRA가 통과되면서 가능
해졌다.

약값 인하 적용 대상은 메디케어 파
트 D(전문의료보험) 및 파트 B(의료
보험)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우선된다.
2026년부터 파트 D 10개 의약품에 대한
약값 인하를 시작으로 2027년 파트 D 15
개, 2028년 파트 D 및 파트 B 각각 15개,
2029년부터는 파트 D 및 파트 B 각각 20
개 의약품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약값 인하로 인해 납
세자들은 6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시니어의 본인 부담 약값에서 15억 달러
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수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신임 당대표가 18일 서울 송파구 KSPO홀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일극체제 완성 “대통령·한동훈 만나자”

85% 역대 최고득표율로 대표 연임
최고위원 전원 친명... 정봉주 낙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민주당 계열 정당 대표 선거 최고
득표율(85.4%)을 기록하며 연임에
성공했다. 종전 최고득표율인 자신
의 2년 전 기록(77.8%)을 깼다. 권
리당원(56%)·대의원(14%) 투표와
여론조사(30%)를 합산한 결과다.
민주당 계열에서 대표 연임은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당시 김대
중 총재 이후 28년 만이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에는 김민석·전현희·
한준호·김병주·이언주 의원(득표
순)이 선출됐다. 모두 친명계로 꼽
힌다. 선거 막판 ‘명팔이(이재명 팔
이) 척결’ 발언으로 친명계와 대립
각을 세웠던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
는 초반 돌풍에도 낙선했다.

김효성 기자
▶▶ 2면 ‘이재명’로 이어집니다

이민 문호 바늘구멍 “100명중 3명만 승인”

3200만명 신청 90만명 입국
쿼터 제자리... 서류 적체 가중
영주권 발급 대기지만 760만

미국 이민 신청자 100명 중 3명만 합법
적인 체류 신분을 받아 입국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미국이민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보고
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만 성인과 자
녀를 포함해 총 3200만 명이 미국 이민
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 중 서류 수속
절차를 마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

국한 이민자는 전체 신청자의 2.81%인
90만 명으로, 미국 이민의 문이 좁아졌
음을 알렸다.

이민 종류별로 보면 취업 관련 신청
자가 전체 이민 신청자의 75%인 2400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입국한 이민자는
20만 명이다. 반면 가족 이민 신청자는
800만 명이나 10%가 넘는 70만 명이 합
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했다. 이는 가
족이민 비자쿼터가 연간 48만 개로 취
업이민(14만 개)에 비해 3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20만 명 중 2만

명이 영주권을 받았다. 이처럼 미국 이
민의 문이 좁아지고 있는 것은 지난 수
십 년간 비자 쿼터는 바뀌지 않고 있지
만 신청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
에 따른 서류 적체 현상이 가중되고 있
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실제로 초당정책센터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현재까지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승인 대
기자는 760만 명이다.

초당정책센터는 서류 승인을 받아도
연간 67만5000개(가족이민 48만 개, 취
업이민 14만 개, 추첨 5만5000개)로 제

한된 비자발급 쿼터에 묶여 대부분이
영주권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
혔다. 센터는 영주권 쿼터를 증가하지
않을 경우 적체 영주권 발급에만 10년
이상 걸리며, 이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약 4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내
다봤다. 이뿐만 아니다. 가족 이민 서류
적체 건수도 690만 건에 달한다. 이 때
문에 일부 신청자들의 경우 영주권 발
급 대기 기간이 200년이 넘는다고 이 보
고서는 지적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비자 쿼터가 없어 서류 승인을 받으
면 영주권을 곧장 받을 수 있지만, 시민
권자의 형제자매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멕시코 출신일 경우 224년을 기다려야

한다. 한국 출신 형제자매의 영주권 발
급 대기기간은 45년이다. 시민권자의 미
혼 성인 자녀의 경우 한국 출신은 14년,
기혼자녀의 경우 33년을 기다려야 한다.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팬데믹 기간
비자 수속을 전면 중단하면서 지금까지
도 서류 적체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
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민자들의 다양성을 높
이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영주권 프
그램의 경우 2021년에만 1180만 명이 지
원해 5만5000개의 비자 쿼터를 놓고 치
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연간 12만5000
개를 발급하는 난민 비자도 신청자가
수십만 명에 달해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장연희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아가 플랜지링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권폭주 견제, 야당의 역할” ... 강경투쟁도 예고

연임성공 이재명, 향후 행보는 “영수회담, 의제 제한할 필요없어”

▶ 1면 ‘이재명’에서 계속
확고한 친명 지도부 구축으로 “이재명 일극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KSPO-DOME)에서 열린 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에서 김두관(12.1%)·김지수(2.5%) 대표 후보를 가볍게 따돌리고 7대 대표로 선출됐다. 이 대표의 세부 득표는 권리당원 88.1%, 대의원 74.9%, 여론조사 85.2%였다. 개표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결과다.

이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한다”며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22대 총선 직후인 4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이 확정된 이재명 신임 당대표와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주·전현희 최고위원, 이 대표, 김민석·한준호·이언주 최고위원. 전민규 기자

이재명 대표는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대표 회담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안이 최선이 라고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하셨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제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 논의도 한 대표에게 제안했다.

강성 지지층의 몰표로 연임에 성공했지만, 이 대표의 숙제도 만만찮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중도층 지지가 여전히 높지 않아서다. 지난달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묻는 한국갤럽 여론조사(7월 23~25일)에서 이 대표는 22%로 1위를 기록했지만, 2022년 9월 27%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답보 상태다. 민주당 지지율은 27%로 국민의힘 지지율(35%)보다 오

차범위(±3.1%포인트) 밖인 8%포인트 차 열세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을 향한 영수회담 제안이나, 한 대표에게 대표 회담을 제안한 것도 외연 확장과 관련이 깊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했고, 당내 강경파가 반대하는 ▶금투세 시행 유예 ▶중부세 완화도 주장해 왔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이재명 2기는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은 수정하고, 보수 정권의 잘한 정책은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경선발표에서 “대통령 부인의 부패를 덮어주느라고 양심적인 공직자를 죽임으로 몰아넣었다”며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했다. 이 대표는 1기 때는 김 여사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일을 삼갔다. 이에 이재명 2기에선 민생 중도층을 공략하되, 현 정부를 향한 투쟁은 더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은 지

난 8일 세 번째 순직 해병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수사 대상에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추가했다. 이날 이 대표가 한 대표를 향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논의하지”고 주장한 것도 여론 분열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수락 연설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야당으로서 정권의 부당한 폭주를 견제하는 것은 본질적인 역할”이라며 “국민의 뜻을 좇아서 강력하게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저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부터 이 대표에게 꼬리표처럼 붙은 사법 리스크는 이번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은 10월 안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친명계는 “만약 1심 유죄가 나오더라도 차기 대선까지 대법원 판결은 어렵지 않겠냐”라는 반응이지만, 1심에서라도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운 판결이 나오면 여론이 요동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효성 기자

‘명팔이 척결’ 외친 정봉주 탈락 ‘살인자’ 발언 전현희 2위 당선

최고위원 당선자 이번 경선초반 선두 정봉주, 6위로 마감 김민석·한준호·김병주·이언주 당선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에서 신임 최고위원에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의원이 당선됐다.

18일 서울 송파 KSPO돔(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정기 전국당원

대회에서 4선의 김민석(서울 영등포) 의원이 최고위원 중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누적 득표율 18.23%였다. 이날 당 대표에 재선된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을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호칭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을 지낸 3선의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의원이 15.88%로 2위를 차지했다. 선거 막바지 당선권 밖까지 밀리기도 했던 전현희의

원인 “살인자” 발언으로 막판 상승세를 타며 최종 2위로 최고위에 입성했다. 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의 죽음을 두고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외쳐 논란을 일으켰다.

재선의 한준호(경기 고양)·김병주(경기 남양주) 의원이 각각 14.14%,

13.08%의 득표율로 3·4위, 3선 이언주(경기 용인) 의원이 막판 뒷심을 발휘해 5위(12.30%)로 최고위에 입성했다.

선거 초반 ‘원의 돌풍’을 일으키며 선두를 달렸던 정봉주 후보는 최종 득표율에서 5위 이언주 의원에 0.6%포인트 밀린 11.7%의 득표율을 기록해 당선에 실패했다. 정 후보는 앞서 자신이 주변에 ‘최고위원회의는 만장일치’라며 ‘두고 보라’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는 폭로로 비난이 거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선자 득표율	
김민석	18.23%
전현희	15.88
한준호	14.14
김병주	13.08
이언주	12.30

자료: 더불어민주당

지자 “이재명팔이” 무리를 뿌리뽑겠다”며 정면돌파를 시도했지만 낙선했다. 성지원 기자

‘통일 독트린’에 침묵하는 북한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을 알렸다. 북한 당국이 윤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침묵하는 상황에서 군이 북한군과 주민에게 관련 내용을 직접 전달했다.

1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이 운영하는 ‘자유소리’ 방송은 이날 오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의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 주요 발

언을 전했다. 지난달 19일 북한의 8차 오물풍선 살포 때 제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동했던 군은 같은 달 21일부터 전면 가동에 돌입한 상태다.

해당 내용을 첫머리에 배치한 뉴스는 “윤 대통령이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실

무 차원의 대화협업체 신설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 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전했다.

‘3대 통일 추진 전략’으로 불리는 세가

지 과제도 언급됐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확고히 가져야 하고 ▷북한 주민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감정적인 수식어를 덧붙이지 않은 채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발췌한 수준으로 뉴스가 구성됐지만 북한군과 주민을 상대로 군 당국이 직접 통일 구상론을 설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안팎에선 김정은 정권이 응

답하지 않는다면 자유에 대한 북한 주민의 열망으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북한 주민이 바깥세상과 대한민국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매력을 발산하면 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8·15 통일 독트린’을 계기로 적극·다각적인 대북 정보 유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근평 기자

워싱턴 날씨 (°F)

20일(화)	83-64	☀️	23일(금)	72-60	☀️
21일(수)	76-58	☁️	24일(토)	84-64	☀️
22일(목)	77-58	☀️	25일(일)	88-67	☁️

8월 19일(월) 86~70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사원, 드라이어

BURK 타운홈 3층 END UNIT
특정 \$660,000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세요!
SOLD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진료 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마사지

워싱턴 사계절 걷기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운동화, 물 한통이면 준비 끝. 걷기 좋아하시는 분 형사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장쉬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절로반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 의사의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버지니아 한인회 선거체제 돌입

버지니아한인회(회장 은영재)가 20대 회장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정중웅 이사는 “공명정대하게, 규칙에 따라 선거위를 이끌고 선거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애난데일 소재 장원반점에서 열린 버지니아 한인회 2차 이사회에서는 이밖에도 선거관리위원으로는 이진우 부회장, 장재욱, 신순희, 오정화 이사를 임명했다. 은영재 회장은 “어려운 현실에서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임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이사회는 윤용숙 이사장이 총 30명 이사 중 14명 참석, 6명 위임으로 성원을 보고해 개회를 선언한 가운데, 24년 하반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논



(왼쪽부터) 이진우-오정화 선거위원, 은영재 회장, 정중웅 선거위원장, 장재욱·신순희 선거위원, 윤용숙 이사장.

의등도 진행했다. 한편, 버지니아 한인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임후보자격은 35세 이상, 버지니아한인회에서 임원 및 이사로 2년이

상 봉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1만 달러의 공탁금과 500명 이상의 추천서도 지참해야 한다. 선거를 위한 세부일정 및 사항 등은 추후 공개한다. 박세용 기자



버지니아한인연합회 창립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버지니아한인연합회 창립 신임 박을구 회장 취임

버지니아한인연합회가 결성돼 신임 박을구 회장을 추대했다.

단체는 워싱턴 지역 전직 한인 회장들의 주도로 1년여 간의 내부 논의 및 준비 끝에 구성됐다. 박을구 회장은 “봉사하는 단체로서 협회를 발전시킬 것이며, 차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해 한인사회에 관심 없던 차세대들을 구성원으로 이끌어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 동중부한인회연합회 김인익 회장은 협회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동포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아는 모범적 한민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단체 설립을 도모했다”며 “협회가 피부로 느껴지는 수준의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창립식에는 공명철 전 동중부한인회연합회장이 정명훈 미주연방총한인회장의 축사를 대독했으며, 김용하 몽고메리 한인회장, 이옥희 프린스한인회장, 문정준 영남향우회장, 신동영 US워싱턴한인회장, 이태수 전 MD한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세용 기자

미국언론이 한국을 소비하는 ‘기괴한 방식’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비율 98%가 사실?

최근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처리 비율이 98%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도했으나 미국 언론이 한국소식을 소비하는 방식 그대로 ‘기괴함’을 전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사는 한국이 철저한 정부 통제 하에 음식물 쓰레기 무단 배출 행위를 엄단하고 각종 혁신적인 조치로 음식물 쓰레기 대부분을 생화학적 발효 과정을 거쳐 퇴비로 사용하거나 동물 사료,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한국은 미국 인디애나주 만한 국토에 5170만명이 살아가는 초고밀도 사회라서 쓰레기 문제로 골치를 앓아오다가 20년 전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정책을 실시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근처 주민의 집단 행동 등이 겹쳐 음식을 먹는 것보다 처리하는 방법이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연방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미국의 음식물 재활용 비율은 최대 20%에 불과하며 60% 이상이 매립되고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6-8%를 차지하는 등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절실한 분야이긴 하다. 하지만 미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한국의 쓰레기 정책은 미국인들에게 기괴하거나 공포스럽다는 반응을 하게 만든다.

기사는 한국의 현실이 한국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로,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말하면서 오히려 한국의

상황을 비정상적으로 몰아간다.

워싱턴 포스트는 조나선 크론스 브렌다이스 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한국과 달리) 지대가 낮고 인구밀도가 낮아 음식물 쓰레기 운반비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쓰레기 처리 표준을 정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기사는 “처음부터 음식을 적게 요리하고 남기지 않는 것이 문제 악화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대안을 제시하며 마무리했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지역 공항·트레일 보조금 획득

덜레스 공항 등 62개
공항에 1억달러 집행

연방정부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 위치한 62개 공항에 총 1억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편성했다.

지난 2021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인프라법률에 의해 모두 6600억 달러 집행을 확정했는데, 올해 공항 관련 보조금 34억달러 중 1억달러 이상이 집행된 것이다.

버지니아는 덜레스 공항이 220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레이건 공항이 1800만달러, 볼티모어 BWI 공항이 1899만달러, 리치몬드 공항이 680만달러 등이 할당됐다. 각 공항은 활주로와

대합실 등 인프라 확장 및 유지에 이 보조금을 집행하게 된다.

인프라 법률에 의해 워싱턴 지역의 트레일에도 상당액이 배정됐다. 특히 이스트코스트 그린웨이 트레일에 7천만달러 이상이 배정돼 획기적인 인프라 확대가 예상된다.

대서양 연안을 따라 플로리다에서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을 거쳐 메인주까지 15개주 450개 카운티에 이어진 자전거 및 보행자 전용 트레일로, 총 3천 마일에 이른다.

워싱턴DC의 뉴욕 다리과 링컨 커넥터 트레일 프로젝트 트레일 1.8마일 구간에 2500만달러가 배정됐다.

김옥채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일은 선택-오니화재

사업체보험
자동차보험
집보험
의료보험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2 최신행 X-Ray 완비
3 교정 및 물리치료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K 로펌 곽태우 변호사

K 로펌을 소개합니다!

“K 로펌의 곽태우 대표변호사는 상업 및 이민법 전문변호사입니다.”

2002년부터 곽 변호사는 비즈니스 구조화에서부터, 사업체 매매, 상업부동산 매매 및 상업이민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중소기업에 도왔습니다.

미국에 11살째 온 한인 1.5세로 최초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되어 국제거래법을 가르쳤으며, 이후 대한민국 주미국대사관 워싱턴 DC 총영사관의 자문변호사로 각종 미국연방법에 관한 자문과 기업체들에 적용되는 연방, 주세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수십 년간의 경영에서 얻은 전문 지식과 더불어 모든 사건에 전적인 관심과 최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K 로펌 K LAW FIRM PLLC | 703.712.7151 | 7799 Leesburg Pike
www.alexkwakesq.com | 571.405.6540 | Suite 1010 N
Falls Church, VA 22043
alexkwakesq@gmail.com

밀입국자 구제 시행 코앞 세부지침 없어 혼란

19일부터 바이든 행정명령 시행 이민국, 신청서 양식도 발표 안해 변호사들 “지침만 기다리는 상황” LAT “수혜 범위 확대할 것” 보도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허용한 행정명령이 혼란을 빚고 있다.

서류 접수 시행일(8월 1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당국이 신청 양식은 물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밀입국자 구제책으로 행정명령(Keeping Families Together)을 발표한 이후 이민서비스국(USCIS)이 세부 지침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행정명령은 19일부터 시행된다. 서류 접수 시행일이 약나흘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이민법 전문 오완석 변호사는 “접수일이 다가왔는데 USCIS는 아직도 세부 지침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현재로서는 행정명령 발표 당시 언급했던 기본적 내용만 갖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침만 기다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신청 자격은 행정명령 발표 당시 기준(2024년 6월 17일)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 ▶10년간 미국에 거주한 자 ▶영주권 결격 사유나 범죄 기록이 없는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밀입국자들은 현재까지 발표된 신청 자격 조건만 갖고 결혼 증명서, 10년간 거주를 증명할 서류들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접수 절차, 신

청서 양식조차 발표된 게 없어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현재 밀입국자 신분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로부터 문의가 오고 있다”며 “그러나 행정명령 외에는 USCIS에서 발표한 지침이 없어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며 수시로 이민국 발표를 체크하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현행 이민법 규정상 시민권자가 비자 만료 등으로 인한 불법 체류자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밀입국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군인 직계 가족 예외)하다.

이번 행정명령은 현행 이민법과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했어도 그동안 합법적 신분을 갖지 못했던 밀입국자 50만 명을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USCIS 발표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행정명령 시행일이 다가오는데, 구체적 지침이 없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실효성도 논란이다.

LA타임스는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자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지난 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단순 문신 때문에 갱 단원으로 인식돼서 출입국이 불허됐거나 20년 전 불법 입국 사례 등으로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자격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을 배제한다면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이번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미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최악의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장영지 기자

너무 비싸... 베이비부머 해외 은퇴 급증

22년 만에 30만 명 늘어 생활비 미국보다 더 저렴 룩셈부르크 등 유럽 인기



인플레이션 상승 등으로 물가가 미국보다 나은 해외를 찾아 떠나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다.

#. 69세 S씨는 미국에서 은퇴 후 높은 집값,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헝가리로 이주를 결정했다. 그는 가까운 시장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먹으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 67세 A씨는 은퇴 생활을 위해서 미국보다 생활비가 저렴한 스페인으로 이주했다. 스페인을 거점으로 유럽을 여행하고 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복잡한 행정절차와 병원을 갈 때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대체로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폭등하는 물가로 인해 은퇴자들의 국내 생활 여건이 악화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늘고 있다.

최근 사회보장국(SSA) 자료에 따르면, 2000년 40만 명이었던 해외 거주 연금 지급자는 2022년 현재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주로 주거, 의료, 식료품 등 생활비가 저렴한 국가로 옮겨서 새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다.

특히, 유럽은 비교적 저렴한 주택 가격과 생활비 덕에 인기 있는 은퇴 이주 지역으로 꼽혔다. 룩셈부르크(9.1%)를 비롯해 독일(8.4%), 핀란드(5.6%), 스웨덴(5.3%)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같은 돈이면 미국보다 훨씬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꾸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식료품 등 대부분의 생활필수품 가격이 미국보다 낮은 것도 일조하고 있다. 최근 CBS의 조사에서, 빵 한 개(500g) 가격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스페인 1.87달러, 포르투갈 1.55달러, 이탈리아 1.83달러, 헝가리 1.52달러 등 2달러가 넘지 않았다. 미국은 2.23달러이며 가격이 가장 비싼 LA는 4.03달러나 됐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자동차가 없어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또 65세 이상 시니어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다. 건강 문제로 자동차 운전이 쉽지 않은 시니어에게는 대중교통 시스템은 큰 장점이다. 물론 단점도 있다. 이주 시 재산 증

명, 은퇴 비자 발급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지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언어 장벽으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것도 힘든 점이다.

전문가들은 해외로 은퇴를 계획하는 시니어들에게 재정적, 법적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조언했다.

민디 유 배터먼트 투자 담당 이사는 “선부르게 해외 은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충분한 준비 없이 떠났다가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미국과 새로운 거주국 양쪽 다 납세의 의무가 발생하고 비자 발급 조건,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 제약 등이 있을 수 있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하은 기자

아이폰서도 삼성페이 쓰게 되나

애플, ‘탭앤고’ 외부 개방 신규 iOS NFC 결제 도입

애플이 아이폰에서 애플페이 외에 다른 결제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삼성페이나 구글페이도 아이폰에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애플은 아이폰의 새 운영체제인 iOS 18.1 버전부터 아이폰의 결제칩을 외부에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애플은 자사 블로그에 “iOS 18.1부터 애플페이·애플워치 외에도 보안 요건을 충족한 앱에 SE(애플의 결제 칩)를 사용한 근거리무선통신(NFC) 비접촉 결제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말기에 아이폰을 가져다 대면 결제가 되는 ‘탭앤고(tap-and-go)’ 기술을 외부 서비스에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애플은 “개별자들은 매장 결제, 자동차 키, 기업 배지, 학생 ID, 홈 키, 상점 포인트

카드, 이벤트 티켓 등 비접촉 결제를 활용한 앱을 아이폰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현실화하면 삼성페이 나 구글페이 등 외부 NFC 결제 서비스를 아이폰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새 운영체제인 iOS 18.1은 다음 달 아이폰 16이 공개되는 만큼 오는 4분기쯤 출시가 예상된다. 다만 이 솔루션을 적용하려면 애플과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애플은 이 방식을 미국과 영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애플은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자사 NFC 비접촉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애플워치를 제외한 타사 서비스는 차단해 왔다. 이 원칙을 번복하게 된 것은 유럽연합(EU)·미국 등 규제당국의 반독점 압박을 일부 수용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애플은 아이폰의 탭앤고 기술에 경쟁업체들의 접근을 허용하기로 약속했다. 접근 권한은 (경쟁업체에) 무료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2020년부터 애플이 애플페이에만 탭앤고를 허용하는 데 대한 반독점법 조사를 이어왔다. 결국 애플이 지난 1월 경쟁사의 NFC 접근을 무료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시정안을 발표하고, EU집행위가 지난달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번 약속으로 애플페이에 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빅테크의 폐쇄적인 플랫폼을 전면 개방하도록 한 EU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서 애플은 연달아 개방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8일엔 애플 앱스토어 내 인앱 결제를 강제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철회하고 EU 역내 개발자들이 앱 내에서 외부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용환·김남영 기자



15년 만에 우정의 종각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 제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샌 피드로 우정의 종각에서 열렸다.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 주관으로 열린 기념식에는 김영환 LA총영사, 팀 맥스커 시의원, 헤더 허트 시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우정의 종각 앞에서 만세 삼창을 하며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김상진 기자

한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고법원 재판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 파산**: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 이혼**: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 상속**: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 소송**: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리치몬드
패션솔라
상담관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사무장 김진주

인플레이션 해법 극과극 갈렸다

“대기업 폭리규제” “에너지값 인하”

(해리스)

(트럼프)



해리스 “식료품 바가지기업 처벌”
트럼프 “석유·가스 개발 더 확대”

확이다. ‘대기업 때리기’를 통한 장바구니 물가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반면에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해법은 에너지 가격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석유와 가스 개발을 더욱 확대해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비용을 절반 이상 낮추겠다고 공언해 왔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기반이 된 친환경 산업 정책 노선 철회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면 주택 가격을 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경제정책 타깃도 대척점에 있다. 해리스의 경제정책 목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산층 가정의 자녀 세금 공제를 1명당 2000달러(약 270만원)에서 3600달러(약 487만원)로 늘리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해 계약금 용도로 2만5000달러(약 340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연간 소득 40만 달러(약 5억 4000만원) 미만 가정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법인세율은 현행 21%에서 28%로 올려 세수 부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반면 트럼프의 목표는 기업 감세 및 규제 완화를 통해 ‘파이(경제 성장)를 키우는 데 맞춰져 있다. 시장 자율



성을 중시하는 기조에 따라 정부 가격 통제에도 부정적이다.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종료되는 개인소득세 감면 시한(최고 세율 39.6%→37%)을 연장하고, 외국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선심성 공약이 재정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영리 싱크탱크인 미국의 ‘책임있는연방재정위원회(CRFB)’는 “트럼프의 제안대로 사회보장기금 세금을 없애면 이를 정부 재정으로 메우는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1조 6000억 달러(약 2167조원)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CRFB는 해리스의 각종 소득공제 및 주택 지원금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미 재정적자가 10년간 1조 7000억 달러(약 2300조원)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특파원 리포트

대선에 활기 불어넣은 ‘시골 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이 있던 날 밤 공화당 당직자 출신 한 취재원은 기자에게 “대선은 사실상 끝났다”고 했다. 천운을 타고 난 트럼프에 동정론까지 몰릴 것 이어서 그의 대선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란 얘기였다. 이를 뒤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는 백악관 재입성을 목전에 두고 치르는 ‘트럼프 대관식’ 같았다.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트럼프 얼굴은 여유 가 넘쳤다.

축제 분위기는 오래 못 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내놓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다. 해리스의 맹추격이 시작됐고 가속도가 붙으면서 판이 조금씩 뒤집히고 있다.

트럼프 대세론이 흔들리는 과정에 해리스의 ‘깜짝 픽’으로 평가받는 러닝메이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가족 농장, 비상군 주방위군, 공립학교 지리 교사이자 축구팀 코치. 월즈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이력들인데, ‘푸근한 옆집 아저씨’ 이미지 구축 배경이기도 하다.

285명이 마을 인구의 전부인 옥수수밭 벼촌에서 태어난 월즈는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니다. 정치인이 라면 누구나 쏟아내는 회고록을 쓴 일도 없다. ‘뉴욕의 억만장자’인 트럼프, 예일대 로스쿨 졸업 후 회고록 『할리웨이 엘리트』로 존 JD 밴스 등 공화당 대통령·부통령 후보와는 두



김형구 워싱턴총국장

릿한 대조를 이루는 프로파일이다. 전국적으로는 ‘무명’에 가까웠던 월즈가 급부상한 건 한 아침 방송에서 “그들(트럼프·밴스)은 괴상하다(weird)”고 한 게 대히트를 하면서다. 엘리트 진보의 고담준론식 정치 비평이 아니라 핵심을 찌르면서도 그보다 더 쉬울 수 없는 수사(修辭) 하나로 대중을 열광케 했다.

월즈는 지난 6일 필라델피아에서 해리스와 함께한 첫 공동 유세에서도 존재 이유를 입증했다. “대선이 91일 남았다. 별거 아니다. 잠은 죽은 뒤 자겠다”며 귀에 착 감기는 말로 전력투구를 약속해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미 언론에서는 “체면되지 않은 스타일인데 빈틈없는 정치 내용을 갖고 있다”(뉴욕타임스)는 평이 나온다.

지난 6월 27일 첫 대선 TV 토론 이후 트럼프 피격, 바이든 후보직 사퇴, 해리스 대선 후보 지명, 월즈 부통령 후보 지명까지 롤러코스터를 탄 대선 레이스. 11월 5일 투표일까지 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다만 이전의 바이든-해리스 팀에선 보기 어려웠던 에너지와 열정이 해리스·월즈 팀에서 느껴지며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미국 민주당 전대기간 반전시위 예고… ‘1968년 악몽’에 떠는 시카고

(19~22일)

팔레스타인 지지 수만명 행진계획
56년 전 베트남 반전시위 유혈사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대선 출정식이 될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리노이주 시카고가 들쭉거리고 있다. 19~22일(현지시간)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에는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약 4700명의 당 대의원, 1만2000여 명의 자원봉사자, 미디어 취재진 등 수만 명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대기간에 맞춰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은 대규모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반대 시위를 예고했다. 미 전역에서 200개 이상 단체가 참가한 ‘DNC 행진(March on the DNC)’은 전대 첫날과 마

지막 날 수만 명이 참여하는 ‘팔레스타인 위한 행진’ 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자나 성소수자 권리를 요구하는 주장도 이 기간 쏟아져나올 것으로 예상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시위 참가자들이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어서 외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해리스 대선후보 옹립식’으

로 치르면서 컨벤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던 전당대회가 시위로 얼룩질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특히 베트남 반전 시위가 한창이던 1968년 반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며 유혈 사태로 번진 ‘피의 전당대회’가 56년 만에 재현될지 우려하고 있다.

시카고시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치안 강화에 나섰다. 전대 주 행사장인 유니타이트센터 주변 도로는 17

일 오후 7시부터 폐쇄됐고, 행사장 인근 도로 곳곳에는 펜스가 설치돼 자동차 운행을 막았다. 행사장 인근 지역에서는 차량 검색이 진행되고 보행자 출입도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이 총출동한다. 마지막 날인 22일 해리스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로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결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홈론 **배준원** 융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whomelending.com
(NMLS# 178471)

센터빌 오피스 토요일도 오픈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1시 무료상담)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마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HOME LOANS
VA, MD, DC, NC, TX, PA, SC, FL

Greenway Home Loans,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Texas Department of Banking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License Numbers: DC ML2501870; MD 2501870; NC L-219066; VA MC-7782; TX 2501870; PA 106923; SC 2501870 Greenway Home Loans Inc. NMLS# 2501870 www.nmlsconsumeraccess.org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이락조 빌딩)
웨일리노래방

40
300m
뉴타운

미락조 옆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밴스 “세계의 경찰 아니다...어느나라도 공짜 점심은 안돼”

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18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우위를 보이는 조사와 관련,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과장되는(overstate)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밴스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2016년과 2020년 대선을 언급하면서 “2020년과 2016년 여름에 진행된 상당히 많은 여론 조사가 대선 당일에 틀렸다(wrong)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16년과 2020년 언론이 공화당원의 투표율을 낮추고 공화당 유권자 간 불화와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가짜

여론조사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봤다”고 말했다.

이어 ‘슈거 하이(sugar high·일시적 흥분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몇 주 전 일시적으로 올라갔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우리 내부 데이터를 보면 해리스는(지지율이) 이미 평평해졌다(levelled off)”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리스 캠프 내부자들과 얘기해보면 그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우리가 11월에 올바른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나는 매우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적으로 우



연설하는 밴스 의원

위에 있다는 워싱턴포스트와 ABC의 이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ABC와 워싱턴포스트는 2020년 여름에 매우 부정확했다”고 평가절하했다.

밴스 의원은 또 해리스 부통령의 인플레이션 대응 등 경제 공약과 관련, ‘역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을

거론하면서 “해리스에게 인플레이션 통제 정책을 주는 것은 마치 엡스타인에게 인신매매 정책 통제권을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해리스가(부통령으로 있으면서) 1천300일 동안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내일 인플레이션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해리스는 새로운 출발이 아니다. 해리스를 해고하지 않고 승진시키는 것은 해리스 정부(바이든-해리스 정부)의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리스의 데이원(day one·임기 첫날)은 3년 반 전이었다”면서 “그녀가 한 모든 일로 인해 경제적

(affordability·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의미) 문제는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밴스 의원은 대의 정책과 관련, “미국은(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면서 “유럽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공짜 점심이 없었던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미국의 세금 보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프랑스와 다른 모든 나라들이 공정한 부담금을 내는 군사 동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나토가 진짜 동맹이 되길 원한다”면서 “유럽이 진짜 동맹이 되는 방법은 미국이 가장 시급한 외교 과제인 중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가자휴전 접근”...미국 당국자 “내주 종결목표”

이란의 대이스라엘 보복 공격 가능성으로 중동에 확전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은 16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가자전쟁)의 휴전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 계기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우리는 아직 그곳(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직접 휴전 협상이 이뤄지기 전인) 사흘 전에 비해 훨씬,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징크스(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일이 꼬이는 상황을 의미)를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 할아버지가 항상 말했듯, 신의 은총과 이웃들의 선의, 많은 행운이 있다면 우리는 뭔가를 얻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카타르 도하에서 15~16일 열린 가자전쟁 휴전 협상에 대해 “최근 수개월 사이의 협상 과정에서 가장 건설적인 48시간이었다”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

그러면서 내주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뤄질 후속 협상에서 “협상을 종결짓는 것이 목표”라며 “우리는(휴전 협상을)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 이스라엘은 지난 15, 16일 이틀간 카타르 도하에서 가자 지구 휴전협상을 벌였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는 못한 채 다음주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에서 암살된 뒤 처음 열린 이번 휴전 협상에 당사자인 하마스는 아예 협상단을 보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도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가자전쟁 휴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17일 이스라엘로 향한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과 만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휴전안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 및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동의 모든 발생 가능한 비상 상황에 준비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가능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사 자원들을 중동에 배치했고, 파트너 및 동맹국과 매우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이란으로부터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든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하지 말라. 우리는 진심이다’는 단 한마디 말만 했다”고 소개했다.

고위 당국자는 이어 최근 중동으로의 미 군사력 증강 배치를 통해 미국의 유사시 군사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을 강행할 경우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 알리기 위한 광범위한 외교를 펼쳐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현 단계 주된 중동 정책 목표는 긴장 완화라고 강조했다.

공화, 월즈 ‘중국인연’ 정조준

미국 공화당이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된 팀 월즈(사진)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한 공세 준비에 나섰다.

16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 감독위원회가 월즈 주지사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제임스 코머(켄터키·공화) 의원은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보낸 서한에서 “월즈와 관련된 중국인연이나 중국 단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FBI가 과거 월즈 주지사에게 중국 공산당의 공작 가능성에 대한 지침이나 경고를 한 적이 있는지도 물었다.

앞서 월즈 주지사는 대학 졸업 후 하버드대 교환프로그램으로 1989년부터 1년 중국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이후 월즈 주지사는 고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의 중국 방문 행사를 기획하기도 했다. 그의 중국 방문 횟수는 지금까지 30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오랜 기간 중국과 인연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월즈 주지사가 ‘선’을



월즈 주지사

넘는 행동을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이다.

공화당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월즈 주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자 그를 ‘급진 좌파’로 규정하고 공격을 이어 나가고 있다.

코머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은 중국과 장기간에 걸쳐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월즈 주지사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선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위해 의회 기능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감독위원회의 조사 자체가 월즈 주지사에게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월즈 주지사 측도 공화당의 조사를 비판했다.

데디 샌 대변인은 “월즈 주지사는 지금까지 인권을 민주주의를 위해 중국 공산당과 맞서 싸워왔고, 미국인의 일자리와 산업을 우선시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급습에 다급해진 푸틴, 징집병 악재까지 만났다

무기도 없이 국경 지역에 배치돼 가족들 “철수시켜야” 청원 쏟아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주 공격을 열흘 넘게 이어가는 가운데 러시아 내 혼란이 심화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쿠르스크에서 징집병

을 철수시켜 달라”는 청원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다. 러시아에서 징병제는 정치적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 직업군인과 달리 징집병은 해외 파병이 법으로 금지되고 전투 작전에 참여하지 않기에 제한적인 훈련을 받는다. 푸틴 대통령도 징집병은 전투에 투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급습으로 징집병이 최전선에 서게 되면서 징집병

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다. 징집병의 할머니라는 나탈리아 아펠은 러시아 독립언론 베르스트카에 손자가 국경에서 약 500m 떨어진 마을에 무기도 없이 배치됐다고 “삼으로 맞서라는 것이냐”고 분노했다.

CN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수도자 거리엔 시신들이 보였고, 도로에는 총탄 자국이 있는 민간 차량이 늘어서 있었다. 광장에 있는 블라디

미르 레닌의 동상은 얼굴 부분이 반쯤 떨어져 나갔다. 러시아는 이처럼 쿠르스크주 상황이 외신을 통해 공개되자 대응에 나섰다. 러 연방보안국(FSB)은 쿠르스크에서 현장 리포트를 제작한 이탈리아 국영 방송사 RAI의 언론인 2명에게 형사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키이우 군사행정청은 러시아가 18일 수도 키이우

에 북한제 가능성이 큰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고 이들 미사일은 모두 요격됐다고 발표했다. 세르게이 포프코 군사행정청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번 공격은 8월 키이우에 대한 세 번째 탄도미사일 공격”이라며 “예비정보에 따르면 러시아가 3회 연속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백일현 기자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r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포터랜드에서 3분, 샐리스포링 롯데 아울렛(Home+max)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첼트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연아빌딩+max)와 첼트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CUCKOO

8월 마지막 여름 혜택

기간 7.30.2024 - 8. 28.2024
조건 기간내 주문 & 8월 내 설치



쿠쿠라서 가능한 혜택!
신제품으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일시불 구매 최대 30% 할인 & 쿠쿠 신제품 증정

프리미엄 제품 구매시

1건 : 30% 할인 + 바비큐 그릴 팬 증정
2건 이상 : 30% 할인 +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증정

프리미엄 + 일반 제품 구매시

최대 30% 할인
+ 에어서클레이터 증정



*일반제품의 경우 할인 가격 다름

렌탈시 다운페이 면제 & 쿠쿠 신제품 증정

1건 일반제품 : 바비큐 그릴 팬 증정
프리미엄 제품 : 에어서클레이터 증정

2건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증정

3건 이상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
에어서클레이터 증정



쿠쿠 시그니처 정수기 마지막 특별 할인

렌탈 계약시

다운페이 면제 +
에어서클레이터 증정
*렌탈 건수에 따라 다름

일시불 구매시

인상전 가격과
추가 할인 혜택까지!



CP-P011G

신제품 안마의자 런칭 이벤트

4D 제품 \$2,000할인 + 파워클론 무선 청소기 증정

일시불

최대 \$2,000 할인

렌탈시

다운페이 \$500 할인



*3D제품 할인율과 사은품 다름

롯데마트 Ellicott City 410-750-8011
리빙스토리 Centreville 703-975-1313

H Mart Annandale 240-595-2257
힐링마을 Ellicott City 443-878-9010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1T/G, CP-QN1401SW, SP-KN501HW, CP-FN601HA, CP-FR601HW, CP-FR601SW, CP-ACR1620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CBD-AM101W

일 반 제 품 CP-ADR501UW, CP-MN031W/BK, CAC-C1020FW, CBT-IS1131REW/RRW, CWS-AO201W, CBD-AM106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선물당 고객 최대 1개 증정

888.700.0425 | CUCKOORENTAL.COM |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아베 총격 피습, 기시다 내각 내리막길의 시작이었다

(전 총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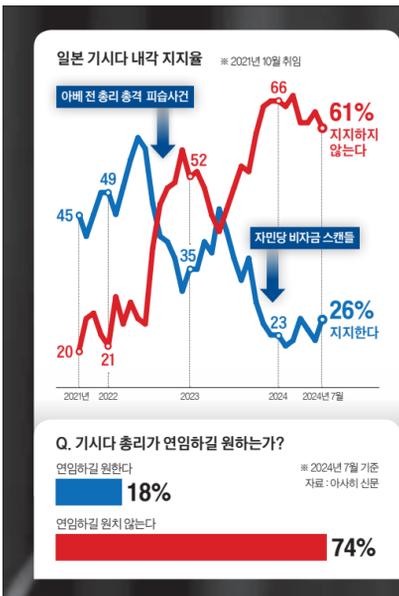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9월 하순에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관련 문제와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문제 등 국민 불신을 초래한 사태가 잇달아 발생했다”며 “자민당이 변할 것임을 보여주는 가장 알기 쉬운 첫걸음은 제가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는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중의원 해산의 시기를 저울질하며 어떻게든 지지율을 반등시켜 정권 연장을 꾀하려는 태세였기에 그의 갑작스런 재집권 포기 선언은 다소 의아했다.

기시다가 두손을 들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말부터 불거져 나온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이다. 자민당 아베파, 모테기파 등 주요 파벌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뒷돈을 챙긴 의혹이 검찰의 조사로 날 날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다. 기시다파 역시 회계 책임자가 입건되었다. 내각 지지율은 급전직하했다. 그는 금권정치의 온상이라고 여겨졌던 파벌을 스스로 해체하는 극약처방을 내렸고 아소파를 제외한 자민당의 모든 파벌은 잇따라 파벌 해체를 선언했다. 또 정치자금규정법을 개정하는 등 정치개혁에 나섰지만 이반된 민심은 돌아오지 않았다.

3년간 기시다 내각 지지율 '전고후저'

민심이란을 초래한 또 하나의 사건은 통일교와의 유착이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총리의 총격 피습사건은 결과적으로 기시다 총리에게는 내리막길의 서막이었다. 저격범은 “어머니가 통일교에 전 재산을 헌납한 결과 가계가 빈털터리가 되고 가족은 파괴되었다”고 범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계기로 통일교와 자민당 의원들 간 선거와 돈을 통한 유착관계가 속속 밝혀지면서 자민당은 공적으로 몰리게 되었다. 이에 기시다 정부는 통일교 해산 명령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렸으나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이었다.

세 번째로 기시다 총리가 재임을 포기하게 된 배경은 사회·경제 정책의 실패에 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새로운 자본주의’를 내걸고 이른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을 공약했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혼선을 거듭한 결과 그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물가는 4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평균 실질임금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저출산 대책으로 사실상의 증세를 시도하다 저항에 부딪혔고 엔화 가치는 끝없이 추락했다. 국민등록제인 ‘마이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변화의 첫걸음은 자신이 뒤로 빠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연합뉴스]

버 제도’ 도입을 꾀했으나 행정의 난맥상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기시다 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정치에서 내각 지지율은 정권의 향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난 3년간의 기시다 내각 지지율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전고후저’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10월 출범 직후 내각 지지율은 53%로 1년간 50%대를 유지하며 순항했다. 통일교와의 유착이 밝혀진 2022년 가을부터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했다. 2023년 들어 지지율은 40%로 회복됐다. 그러나 자민당 비자금 파문으로 다시 연말부터 지지율은 20%대로 하락, 그 후 저공비행을 지속했다. 한때 지지율은 18%까지 내려간 적도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 정권의 위험 신호로 여겨진다. 자민당의 지지율과 내각 지지율의 합이 50% 이하로 내려가면 정권 구심력이 약화 되고 마침내 붕괴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아오키 미키오 (오부치 내각의 관방장관을 지낸 자민당 의원) 법칙’으로 보더라도 기시다 내각은 작년 말부터 줄곧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었다.



총격범 ‘통일교 헌납으로 가족 파괴’

통일교·자민당 유착 밝혀지며 파장작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결정타 경제정책 실패, 지지율 20%대 급락 적극안보로 정책 전환, G7 회의 개최 한국과 관계 정상화 등은 외교 성과

돌이켜보면 기시다는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어렵사리 당선되었다. 1차 투표에선 국민에게 인기가 있고 당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는 아소 타로를 겨우 1표 차로 따돌려 1위를 했고 1, 2위가 겨우는 결선투표에서 주요 파벌 영수들의 지지를 얻어 총재에 당선되어 총리 자리에 올랐다. 총리 취임 4주 만에 치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절대안정 다수인 261석을 획득함으로써 국민 신임을 받아 안정적 정권 운영을 보장받았다. 2022년 7월에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은 승리를 거두었다. 비록 비명으로 사라진 아베의 정치적 유산을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숙명을 부여받았지만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여전히 50%대 탄탄대로였다. 그러나 통일교와의 유착관계가 속속 사실로 드러나면서 지지율은 30%대로 곤두박질쳤다.

2023년에 들어 기시다 내각은 지지율을 다시 40%대로 끌어올리며 정국 주도권을

회복했다. 지지율이 반전되어 상승 곡선을 타게 된 계기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리더십 발휘였다. 기시다 정부는 집권 2년 차부터 외교·안보 정책 영역에서 눈길을 끄는 족적을 남겼다. 3년간 기시다 내각 시기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방위정책과 외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논자에 따라 엇갈릴 수 있으나 일본 정치·외교사 맥락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기시다 정부는 2022년 말, 전후 일관되게 고수해왔던 전수방위 원칙과 소극 안보노선에서 벗어나 적극 안보로 탈바꿈하는 큰 걸음을 내디뎠다. 말하자면 일본 안보정책의 전환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전후 내내 ‘국내총생산(GDP)의 1% 미만’ 원칙을 고수했던 방위비 지출을 5년간 두 배로 늘리는 한편, ‘적기지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미야자와 총리 이래 30년 만에 정권을 잡은 비둘기와 ‘고치카이’의 영수인 기시다 스스로가, 오자와 이치로가 일찍이 주장한 ‘군사적 보통국가’로 한 걸음 바짝 다가서게 된 건 일종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차기 총리 이시바, 고노, 모테기 물망

기시다 외교의 하이라이트는 2023년 3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였다. 그는 우크라이나로 날아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G7 회의에 초대했다. 그의 고향 히로시마로 7개국 정상을 초청해 ‘핵 군축, 불확산 선언’을 이끌어내는 리더십

을 발휘했다. 또한, 기시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잇단 정상회담을 통해 대미동맹을 한층 확대 강화하고 미·일 안보의 일체화를 시도했다. 더 나아가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추구하는 전방위 외교에 나섰다. 한마디로 기시다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미국 편에 확실히 줄 서는 선명한 선택을 했고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대결 구도 하에서 ‘민주주의 진영 외교’에 충실한 외교를 펼쳤다.

전후 최악의 관계로 일궈진 한·일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하고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시킨 일 또한 기시다 외교의 성과로 기록될 것이다. 물론 갈등의 뇌관인 징용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로 ‘잃어버린 10년의 한·일 관계’를 일거에 개선시킨 주역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어쨌든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수출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으로 팍 막힌 난관을 풀고 이웃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것은 레거시로 간주하고 싶을 것이다. 더 나아가 기시다는 한·일 간 군사적 불신을 극복하고 미국과 더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틀을 재구축, 가동하도록 하는 한 축을 담당했다. 총재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기시다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이루고 기시다 내 60주년을 맞이하여 협력적 한·일 관계를 굳건히 유지시킬 필요성을 힘주어 언급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다가오는 9월 하순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대어섯 명의 후보가 자전다 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은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곧 총리가 되는 내각제를 취하고 있어 자민당 총재 경선은 사실상 총리를 뽑는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자민당의 총재선거는 당내 국회의원 표가 50%, 당원·당우 표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유력한 총재 후보로는 국민 인기는 높으나 당내 비주류인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단탄한 관록의 고노 다로 디지털상, 당내 최대 계파를 이끌고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으로 가미가와 요코 외무상,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도 여성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자민당 우월 정당 체제 하에서 어느 후보가 총재가 당선되더라도 한·일 관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제인 한국, 미국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자민당의 누가 총리가 되어도 이념과 정책의 스펙트럼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대표 703-973-8700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예천 앞 빌딩 3층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데이케어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데이케어 드라이버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들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요즘 세상에 간첩? 북은 오늘도 양성

대북 정보전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블랙요원'들의 명단과 신상정보가 중국인을 거쳐 고스란히 북한으로 넘어간 정보사 기밀유출 사건으로 허술한 방첩망이 도마위에 올랐다. 긴 시간과 막대한 자금을 들여 어렵사리 구축한 대북 첩보망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됐다. 나의 실패는 상대방의 성공으로 직결되는 법이다. 이번 사건을 뒤집어 보면 북한의 대남공작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북의 입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김동식(61)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이사장만큼 북한의 대남공작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 자신이 20대에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고 차관급 대우를 받았던 거물 남파공작원 출신인데다, 전향 후 최근까지 국군 기무사와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30년 가까이 북한의 대남 공작과 정보 분석에 종사해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파란만장'이란 표현이 딱 들어맞는 그의 개인사는 최근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콘텐츠 서비스인 더 중앙플러스에 '스파이전쟁'이란 이름으로 연재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9년 훈련, 공화국 영웅 칭호·차관급 임직
-1990년대 남파공작원으로 내려와 충남 부여에서 군경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체포되어 세간을 떠돌썩하게 했다. 당시 침투 임무는 무엇이었나.

"나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 들어가서 4년, 졸업 후 5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고 공작원이 됐다. 1990년이 되자 임무가 떨어졌다. 남한에서 암약하던 여성 고경간첩 이선실과 접선하고 지하당 조직을 구축하라는 명령이었다. 이선실은 노동당 서열 22위의 거물이었다. 1990년 5월 30일 새벽에 제주도 남쪽 바다로 이동해 서귀포시 인근 해안을 통해 상륙했다. 당의 명령대로 이선실과 접선에 성공하고 북귀할 때 그를 데리고 갔다. 또 노동운동가 황모와 운동권 출신 손모를 포섭하는 데 성공했다. 무전연락과 암호해독 등 초보적 지식에서부터 지하당 결성, 관리 방법까지 하나하나 지도하고 황모를 북으로 데려가 교육시켰다. 내 임무 수행은 대성공이었다.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지하간첩망을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으면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고작 28살 때 신분이 수직상승한 것이다."

-남파는 한 차례였다.
"1995년 8월에 2차 침투 명령이 내려



남파 공작원 출신인 김동식 북한전략센터 이사장은 북한은 여전히 남파 공작을 하고 있다며 "북한은 여전히 칼을 버리고 있는데 한국의 방패는 무력화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종근 기자

왔다. 이번에는 운동권 인사들을 대거 포섭하라는 명령이었다. 명령에 따라 1995년 9월 2일에 반잠수정을 타고 또 다시 제주도로 잠입했다. 그때 이인영·허인회·이상호·함운경 등 학생운동 출신과 시인 고은씨 등 명망가들을 각각 만났다. 그들은 수배 중이거나 몰물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행방을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인물들이었다. 나중에 수사관으로부터 '우리도 찾아내기 힘든 사람들을 만났더니 참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나의 제의를 이런 저런 이유로 거부했다. 나를 프락치로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민주화 운동은 (북의 도움없이) 우리 힘으로 한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 그 뒤 충남 부여 정각사에서 '봉화 1호'를 만나라는 당의 지령을 받고 갔는데 정보가 새는 바람에 매복해 있던 경찰들과 총격전이 벌어졌다. 나는 장만지에 총을 맞고 체포됐다."

-전향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전향을 거부했다. 생포 위기에서 자결하지 않은 것만 해도 배신자인데 전향하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

90년, 여 간첩 이선실 데리고 북귀 95년 2차 침투 명령은 운동권 포섭 부여서 경찰과 총격전 벌이다 잡혀 동료에게 가족 속청 소식 듣고 전향

남한 내 간첩 관리하려면 공작 필수 해외 우회 침투, 국적 세탁 등 여전

족이 위험해진다. 그러다가 2년 정도 지난 뒤 남파 간첩으로 검거된 최정남을 만나 가족들이 모두 숙청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버지는 노동당 간부로 30년간 당에 충성을 다한 사람인데 아들이 체포됐다고 하루아침에 숙청하는 게 말이 되나. 내게 남파를 지시한 것은 당인데, 평생을 당에 충성한 부모에게 책임을 지운 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전향을 결심했다."

-공작원은 어떻게 양성하나.
"내 경우를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황해남도 용연에서 고등중학교를 다니던 중 18살 때 김정일정치군사

대학에 선발됐다. 한국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북한 최고의 대학이라 여기지만, 진짜 엘리트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 모인다. 북한 내에서 유일하게 노동당이 직접 관장하는 대학이다. 매일 20kg짜리 배낭을 메고 구보로 행군한다. 태권도·유도·합기도 등을 혼합한 종합 무술인 격술(擊術)을 4년 내내 훈련했다. 무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실대련 위주다. 수업은 김정일 혁명역사와 주체철학 등 사상 무장과 함께 국사·지리·역사·철학·한문·영어·경제학·수학·물리·화학·군사학 등 다양한 과목을 듣고 남조선 정세도 공부한다. 교육이 혹독한 만큼 최상의 생활수준이 제공된다. 1인용 침대를 제공하는데 호텔처럼 침구를 갈아주고 음식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자부심을 안겨 줄 수 없다. 남파공작원으로 선발되는 인원은 연간 5~6명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대우하는 것처럼, 북한에선 공작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기관처럼 대우한다. 가령 명절 때 북한에선 각 기관 명의로 최고 영도자에게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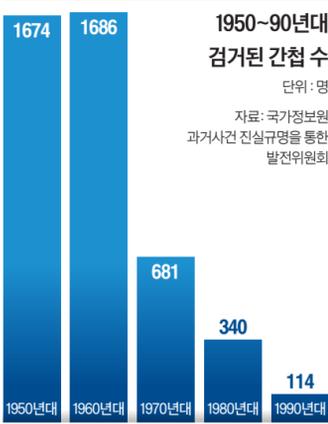
전을 쓰는데, 공작원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쓴다."

김 이사장의 '개인사'를 듣는 동안 의문이 들었다. 그건 30년 가량 지난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게 아닐까.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굳이 리스크가 높은 남파 공작을 할 필요가 있을까. 김 이사장은 "북한이 남파 공작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며 "북한은 여전히 칼을 버리고 있는데 한국의 방패는 무력화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물론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굳이 사람을 보내지 않아도 많은 정보를 얻어 낼 수 있고, 이미 남한에 포섭해둔 사람들을 통해 북으로 정보가 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직접 공작원을 내려보내야만 하는 일도 있는 법이다. 포섭해 둔 남한내 간첩은 어떻게 관리하고 지령을 내리나. 해외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직접 국내에 잠입해 포섭해 둔 조직을 관리하는 공작원도 있다. 예전만큼 무장 남파간첩의 침투가 포착되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공작은 진행되고 있다. 요즘은 해외를 우회해 침투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국적을 세탁하고 제3국 여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방식이다. 물론 공작선으로 침투해 접점 해안지역 인적 드문 곳에 공작금을 묻어두고 도로 넘어가는 사례도 여전히 있다."

북, 공작원 한 사람을 한 기관처럼 대우
-최근 수년 간 침투간첩단, 창원간첩단, 제주간첩단 등을 적발했다. 그런데 막상 잡고보니 직위가 높은 거물급이 아닌데다가, 그들이 실제로 한 일이 대단치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딴지, 혹은 있어봤자 무슨 위협이 되냐는 생각들이 퍼진 것 같다.

"얼핏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안이한 생각이다. 가령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서 북한이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를 통해 청와대 전기 배선, 구조도 등을 수집하도록 지령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얼마만큼의 정보가 넘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청와대를 한방에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용산으로 옮긴 이유 중 하나로 이런 보안상의 고려가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한다. 그 뿐 아니다. 해군 2함대 사령부가 있는 평택의 군사기지와 국가기간시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LNG 보관 탱크와 부두를 마비시킬 준비를 하라는 지령이 실제로 전달됐다. 포섭된 사람이 거물급이 아니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다고 할 수 있나." **황건강 기자**



1 김동식씨가 1996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 충남 부여에 침투한 무장간첩 사건을 보도한 중앙일보 1995년 10월 25일자 1면. (중앙포토)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이구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8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신비한 재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 특진 (사암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실염, 부인과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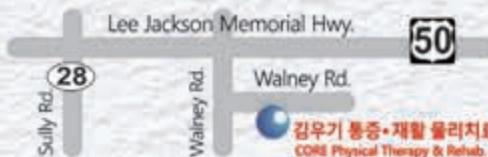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대졸 이상 청년 '그냥 쉬었다' 20% 증가... 취업 눈높이도 영향

올 초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모(28)씨는 최근 '취준'(취업 준비)을 접고 대전에 있는 본가로 돌아가 쉬고 있다. 인문·상경계열을 이중 전공한 그는 지난해부터 취업에 도전했지만 '문과생' 공채 문이 좁아지면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이씨는 "면접이나 인·적성 단계까지 가기도 못하고 서류부터 탈락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한계를 느꼈다"며 "전문직 시험이나 고시 등 다른 진로로 변경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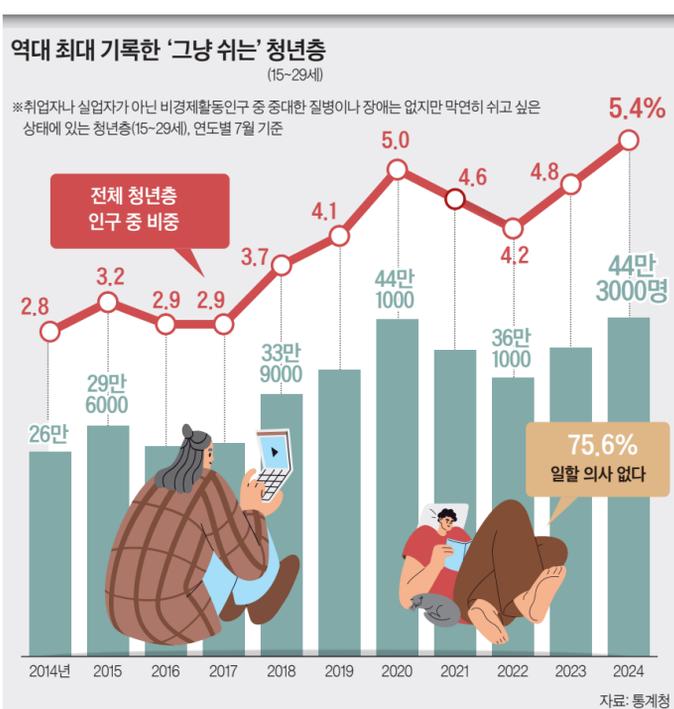
이씨처럼 취업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청년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조사에 따르면 7월 청년층(15~29세) '쉬었음' 인구는 전년 대비 4만2000명(10.4%) 늘어난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었던 2020년(44만1000명)과 2021년(39만9000명)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쉬었음' 인구란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지난 달 청년층 인구 815만 명 중 '쉬었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를 기록했

청년 '쉬었음' 고령층 다음 많아 임금·근로조건 등 취업포기 이유 '양질 일자리 없어 아예 구직 손떼'

다. 이 역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고령층(60세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대보다도 많았다. 40대 '쉬었음' 인구는 28만4000명을 기록했고 이어 30대(28만8000명), 50대(39만4000명) 순으로 많았다. 원래 '쉬었음' 인구가 가장 많은 고령층의 경우 110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일할 의사도 부족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청년층 '쉬었음' 인구 중 '일하기를 원했으나'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75.6%인 33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4명 중 3명은 구직 의사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구직 의사가 있는데도 쉬는 나머지 청년층은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4만5000명)를 가장 많은 이유로 꼽았다. 뒤이어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자리가 없



었기 때문에'(2만 명), '교육·기술·경험이 부족해서'(1만4000명), '근처에 일거리가 없거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만2000명),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

시'(9000명) 순으로 이어졌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탓에 청년층이 구직 시장을 아예 떠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조합 효과를 지닌 내수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면서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이다.

과거보다 고학력자가 많아지면서 취업 눈높이가 높아진 영향도 있다. 원하는 일자리와 남아 있는 일자리 간에 '미스매치'(불일치)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대졸(전문대 포함) 이상 '쉬었음' 청년층 인구는 전년 대비 19.8% 늘어난 반면, 고졸 이하는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률 악화는 저출생 흐름과 맞물리면서 산업 생산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노동인력의 고령화, 세수(稅收) 차질, 만혼에 따른 저출산 악순환 등 국가적 손실이 커진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은퇴를 미루는 베이비부머 세대와 결합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층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인천 벤츠 이어 용인서 테슬라 화재

지난 1일 인천시 청라 벤츠 전차 화재에 이어, 16일엔 경기도 용인에서 주차 중이던 테슬라 차량에 불이 나는 등 전기차 화재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도 16일(현지시간) 리스본 움베르투 델가두 국제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발화 추정 화재로 차량 200여 대가 불타다.

전기차 화재사고 비율은 경유보단 낮지만, 휘발유·하이브리드 차량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도 컸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5년간 화재·폭발에 의한 사고를 분석한 결과, 건당 손해액이 전기차 1314만원으로 내연기관차(693만원)의 2배가량이었다.

완성차 업계에서 잇따른 화재사고로

인한 소비자 공포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업체가 안전성을 경쟁력으로 삼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잇따르는 화재사고에 업계는 긴장 상태지만, 학계 일각에선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이 형성돼 있다는 반론이 있다. 국제배터리협회(IBA) 이사인 윤원성 성균관대 에너지학과 교수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어떤 것이 더 위험하다는 통계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화재를 최소화하고 초동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전기차의 연이은 화재사고를 계기로, 한국 배터리 업체가 안전성을 경쟁력으로 삼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선우명호 고려대 자동차융합학과 석좌교수는 "현재까지 업계의 기술 경쟁이 전기차 주행거리 늘리기에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앞으로는 안전 경쟁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다른 경쟁국보다 안전성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K배터리의 기술적 차별성을 부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선욱·고석현 기자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도로에 있던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났다. [사진 경기도소방본부]

메타버서 먼저 일 시켜보고... '탈스펙' 이력서 받는 기업들

(가상 인턴십)

가상공간서 인턴십, 직무역량 평가 '스펙 기재 없애니 채용 오류도 줄어'

맞춤형 인재를 찾으려는 기업들의 색다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스펙'보다는 이른바 '일머리'가 있는 신입사원을 찾기 위해서다.

한솔그룹은 물리적 공간을 초월한 가상형 인턴십을 도입했다. 최대한 다양한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동시에 검증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의 회사인 '한솔 드림버스 컴퍼니'를 만들었다. 메타버스 속 회사에서도 인턴 대상 교육과 업무 수행이 실제와 유사하게 이뤄진다. 인턴은 현직자인 멘토와 함께 가상공간에서 업무 협업을 활용해 결과물을 도출한 뒤 제출하는 식이다. 비대면인 덕분에 한솔그룹은 지난해에 290명, 올해 상반기에만 210명이 참여한 대규모 인턴십을 진행했다.

특히 물리적 거리의 제약이 없어 올해는 인턴 중에 비서울권 거주자 비율이 75%에 달했다. 충남 아산에 사는 이수아(24)씨는 "집이 지방이라서



한솔 메타버스 드림버스컴퍼니. [사진 한솔그룹]

인턴 기회를 포기한 적이 많았다"며 "신입도 직무 경험을 요구하는 회사가 많아 취업준비생 입장에선 (가상형 인턴십이) 귀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 회사 전승미 인사지원팀 책임은 "우수 수료생의 경우 각 계열사에 이력서를 제공해 채용에 가산점을 주는 인재 풀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채용의 첫 관문인 이력서 단계부터 불필요한 스펙 대신 직무 역량을 평가하려는 시도도 있다. 화장품 브랜드 '닥터G'로 알려진 고운세상코스메틱은 지난해부터 지원자의 학력 제한을 없앴고, 이력서에서 공인 외국어시험 점수 및 수상 경력 등의 기재란을 삭제했다.

사실상 '탈스펙' 이력서인 셈이다. 대신 자기소개서와 AI 역량 검사 등을 통한 지원자 역량 검증을 강화했다. 탈스펙 이력서를 처음 도입한 지난해 공채에 총 3094명이 지원했고, 15명을 최종 선발했다.

박철아(27)씨는 직무 역량을 높게 평가받아 약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다. 박씨는 정보기술(IT) 기업인 NHN 인사팀에서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험을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통해 강조했다. 현재 인재성장팀에서 근무 중이다. 그는 "스펙을 안 본다"고 해서 지원한 직무에 부합한 인재라는 점을 더 어필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교육의봄 전선희 팀장도 "이력서에서 직무에 불필요한 스펙, 실제로는 평가하지 않는 스펙 등을 과감히 제거해야 지원자들이 스펙 쌓기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자신의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며 "지원자가 자신의 직무 강점을 스스로 기획해 이력서를 작성하는 자유 양식 지원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탕감
전문

“ 세무 보고, 절세 전략, 세무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정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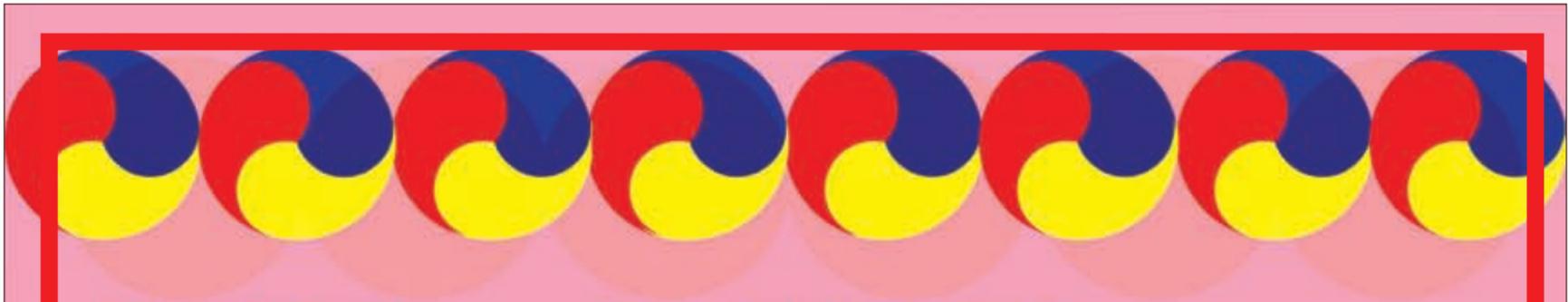
김영선
연방세무사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한국 TV 시청 가능
- 최고의 시설 (1인/1실)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 INOVA 병원 5분 거리

문의 703-980-9890



새 경영진
NEW MANAGEMENT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어머님,
아버님!**

**사랑과 정(情)으로
효심껏 모시겠습니다.**



이선옥 원장

장두석 회장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Arirang Adult Medical Daycare Center

센터 운영 시간

월요일-토요일
오전 8시-오후 2시

Tel: 410-730-9740 Fax:410-730-9742 Mail: ariranginfo@gmail.com

주소: 9170 Rumsey Rd. Columbia MD 21045 www.aamdc.org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렸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DJ 15주기... “행동하는 양심 계승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5주기 추도식이 1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고인을 추도하고 ‘김대중 정신’을 되새겼다.

이날 추도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김원기·임채정·문희상·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홍철호 대통령실 정부수석 등도 참석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김두관 후보도 이날 치러지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추도식에 들렀고, 노재현·김현철·노건호씨 등 전직 대통령 자제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

우의장은 추도사에서 “생애 마지막 연설에서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으로 평화로운 남북관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신 바로 그 길, 그리고 또 어떤 의

세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또렷한 나라, 그 길”이라며 “어떻게든 길을 뚫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나날이 대결로 치닫고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는 지금,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절감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도 “김 전 대통령은 2024년 어떤 정치인보다 지금에 맞는, 진영을 초월해 시대정신을 깨우는 해안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의식을 갖춰야 한다”, “정치는 국민보다 반보 앞서야 한다” 등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하며 “이 말씀 들만 실천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추도식 전 페이스북에 “민주당을 서민과 중산층의 당으로 바로 세우고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를 이겨낸 유능함, 위기 속에서 복지국가와 문화강국의 초석을 닦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었던 해안까지, 김대중의 길이 민주당의 길이 대한민국이 나

아가야 할 미래”라고 썼다.

이날 추도식에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최근 김 전 대통령 서거 매각으로 논란을 빚은 삼남 김홍걸 전 의원도 참석했다. 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를 놓고 정부와 충돌하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종찬 광복회장도 모습을 나타냈다. 이 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국정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일부 인사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민생경제는 파탄 났다.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민주주의의 완성, 민생경제의 회생, 한반도 평화변경을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함세웅 신부는 “일제 침략하를 옹호하고 겨레를 핍박하는 이 무도한 정권을 어떻게 단죄해야 하는지 모두가 힘을 모아 고민하고 투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성운·김정재 기자**

김민희, 로카르노영화제 최우수연기상

배우 김민희가 17일 스위스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연인 홍상수 감독의 신작 ‘수유천’으로 국제 경쟁부문 최우수연기상을 받았다.

시상대에 오른 김민희는 한국어로 “로카르노와 심사위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길게 찍고 싶었는데 5일이 너무 짧았다”며 “그 짧은 시간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 감독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어주신 홍상수 감독님, 저는 당신의 영화를 너무 사랑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수유천’은 ‘우리 선희’(2013),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 ‘강변호텔’(2018)에 이어 네 번째 로카르노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홍 감독의 작품이다. ‘수유천’에는 김민희를 비롯해 권



17일 로카르노국제영화제 포토콜에서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 [EPA-연합뉴스]

해효·조윤희·하성국 등이 출연했다. ‘수유천’은 여자대학교 강사가 몇 년째 일하지 못하고 있는 외삼촌에게 촌극 연출을 부탁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수유천’은 올 하반기 국내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조문규 기자**

“치료법 한계 깬다”... 우주 연구하는 이비인후과 의사

“암 수술 환자에게 이식용으로 쓰기 위한 고막 등 인공장기를 3D 프린터로 만들다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반면 중력이 적은 우주에선 간·신장 같은 큰 장기를 만드는 걸 포함해 의학 연구가 훨씬 쉬워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죠.” 박찬용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밝힌 병원에서 우주로 눈을 돌리게 된 이유다.

“우주를 연구하는 의사이자 의과학자. 박 교수를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이다. 코재간·두경부암 진료 등 병원 내 ‘분업’ 외에 국내 최초로 우주에서 암세포를 배양하고 항암제 반응도 관찰할 수 있는 연구 위성체 개발을 앞두고 있다. 그는 1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사와 의과학자가 동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의학 임상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우주에 관심이 컸던 건 아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벽에 종종 부딪히게 되면서, 환자 치료를 위해선 지구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렇게 우주의학 분야에 뛰어들지 10년째. 병원에서 별거 아닌 의료용 튜브를 무중력 상태에선 어떻게 쓸지 몰라 수많은 테스트에 나서는 등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의 말을 빌리면 “팬텀에 해당하면서 위성체 개발까지 온 셈”이다.

여러 고비를 넘긴 연구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선 내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4호에 이른바 ‘바이오 캐비닛’을 싣는 게 첫 번째 도전이다. 바이오 캐비닛은 우주에서 줄기세포를 혈관 등으로 분화시키고, 심장 등 장기도 3D 프린팅하는 장치다. 개발은 마무리 단계



연구실에서 우주 의학관련 연구 상황을 설명하는 박찬용 교수. [사진 한림대춘천성심병원]

로, 오는 10월쯤 누리호에 캐비닛을 탑재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우주에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큰 우주인들의 치료를 위한 연구”라고 설명했다.

다음 단계는 2027년 발사 예정인 지구 귀환형 인공위성을 통한 연구다. ‘인류가 가진 종양 중 가장 악성’이라는 교모세포종을 우주에서 배양하고 항암제를 투여한 뒤 반응 등을 살피고, 위성체를 다시 지구로 귀환시켜 정밀 유전자 분석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달의 극한 환경을 버틸 수 있는 극지 식물을 달에 심어 산소·식량 확보 등을 돕는 게 최종 목표다.

해외에선 대형 제약사 등이 우주에서의 고순도 산악·인공장기 연구에 천문학적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우주 의학이 미래 먹거리로 빠르게 떠오르는 추세다. 박 교수는 “우주 환경 테스트 등을 위해선 엄청난 돈과 노력도 필요해서 진입 장벽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당장 (병원을 나가) 개원해도 먹고 살 순 있겠지만 인류에 기여하는 보람, 그리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보람이 남다르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태풍도 못 뚫는 ‘지옥 폭염’... 내일 수도권 36도 치솟는다

올여름 태풍이 강한 폭염에 밀리면서 단 한 개도 한반도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복상 중인 제17호 열대저압부(TD)는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한 채 19일부터 남부에 많은 비를 쏟을 전망이다.

18일에도 전국 대부분이 폭염 특보가 내려졌고, 간밤(17일 밤~18일 새벽)에도 전국적으로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난다. 서울은 간밤에도 최저기온 27도를 기록해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을 28일로 늘렸다. 부산은 24일째, 제주 34일째다. 17일 기준 전국의 평균 폭염일수(일 최고기온 33도 이상)도 18.9일로 평년(9.5일)의 두 배, 열대야일수는 15.9일로 평년(5.7일)의 세 배다.

반면 태풍은 올여름 한반도에 접근도 못 하고 있다. 한반도 상공을 뚫은 채 폭염을 일으키는 두 고기압(타베트 고기압·북태평양고기압) 때문이다. 기

상청의 태풍 발생현황 통계를 보면, 올여름 총 6개의 태풍이 발생했지만, 단 1개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제7호 태풍 ‘암필’ 등 이달 들어 발생한 4개도 고기압 세력에 밀려 일본 동쪽으로 빠져나갔다. 폭염의 강도는 20일까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20일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앞으로 폭염의 가장 큰 변수는 17일에 발생해 복상 중인 제17호 TD다. TD는 태풍과 같은 열대저기압 중 하나인데,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17m 미만인 경우다. 최대풍속이 초속 17m 이상이면 태풍으로 분류한다.

기상청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한반도로 접근하는 이 TD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타베트고기압이 여전히 대기 상층을 덮고 있어서다.

송수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고기압 때문에 상층의 지원을 받지 못해 태풍으로 발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TD의 영향으로 19~20일에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상권은 30~80mm, 제주 1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5~20mm의 비가 예보됐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면서 폭염이 완화될 수 있다. 하지만, 특보가 해제될 만큼 폭염의 기세가 꺾일 가능성은 작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열대저압부와 함께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열기가 유입되고 낮 동안 더위가 지속할 것으로 보여 폭폭 찌는 밤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천원필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신제품 세종 후코펫

- 5가지 특수영양성분, 3가지 기초영양성분으로 개발
- 면역력, 관절, 시력건강을 위한 가루타입의 특수영양제
- GMP의약품 제조기술로 최적의 효능을 이루도록 개발

주요 성분

Fucoidan: 항종양효과, 면역력증대, 체질개선효과

Bilberry Ex: 뛰어난 항산화작용, 시력건강, 소화가능강화

Glucosamine, Chondroitin: 관절염, 관절건강 증상완화, 통증완화.

L-Arginine: 혈관확장, 혈류흐름, 배독작용, 활력강화, 성장기 골격형성

신제품

하루 1스푼 5g (1개월분)

Sejongbiotech, Inc.

Biobach 세종바이오텍

www.sejongbiotech.us | www.sejongbiopet.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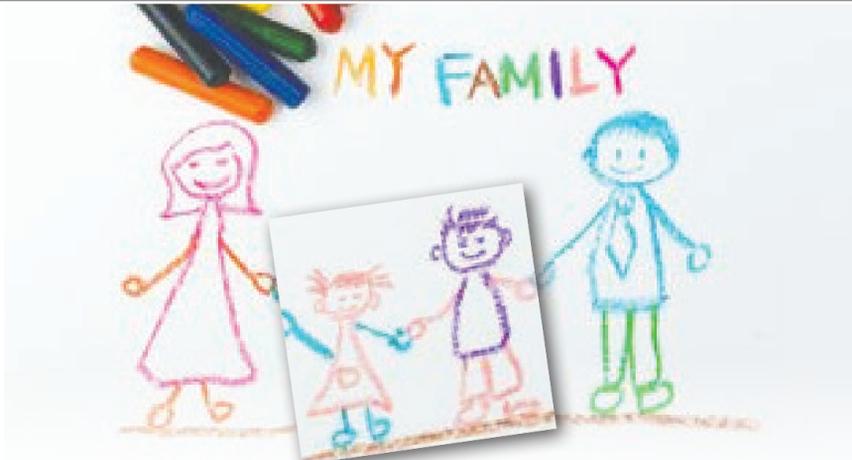
703-256-7671

부산에 거주하는 영국인 토마스 팔렛(42)은 2019년 5월 한국 국적 강도(47)씨와 결혼해 F-6(결혼 이민) 비자를 받았다. 두 사람은 각각 30대 후반, 40대 초반인 나이를 고려해, 결혼 약 1년 전부터 입신을 시도했다. 하지만 자연 임신에 실패해, 난임 치료와 함께 입양을 고민했다. 오랜 논의 끝에 한국 아기 입양을 결심한 부부는 입양 전문기관을 찾았다. 하지만 홀트아동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 모두 입양 신청을 거절했다. “국내에서 입양하려면 부부 모두 한국 국적이어야 한다”, “한국 거주 국제부부를 위한 입양 프로그램이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한 기관은 팔렛에게 “(영국 국적을 포기하고) 귀화하면 입양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해외로 입양된 한국 국적 아동은 2903명이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입양 아동(6817명)의 42.3%다. 연평균 290명의 아동을 해외로 보내고 있지만, 국내에선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외국 국적이면 아동을 입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헌법상 문제는 없지만, 입양기관 등이 꺼리기 때문이다.

입양기관들은 ‘양부모 자격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 입양특례법에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제10조 4항)고 규정돼 있는데, 국가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필요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입양기관들은 일부 해외 국가의 입양 전문기관들과 ‘국외 입양 협력기관 협약’을 맺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미국·덴마크·노르웨이·프랑스·룩셈부르크, 대한사회복지회는 미국·스웨덴·캐나다·이탈리아 등의 기관과 협약 관계다. 해당국에서 입양 신청이 들어오면 협약을 맺은 현지 기관이 본국 법령에 따라 양부모의 입양 자격을 평가해 국내 기관에 서류를 제공한다.



“해외 입양 순하게 보내면서 국제부부 입양 왜 거부하나”



이숙 윌리엄씨 가족이 위탁 양육한 아기의 돌잔치 사진. 가족은 입양을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진 이숙 윌리엄씨)

하지만 국내 거주 국제 부부 대부분은 본국 입양기관이 가정환경 조사 등을 할 수 없어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다. 대한사회복지회 관계자는 “미(未) 협약국 국적자가 입양을 신청한 경우엔 더욱더 평가가 어렵다”고 말했다.

사후 관리 문제도 있다. 입양기관은 입양 뒤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가 서로 잘 적응하고 있는지 관찰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가 한국을 떠날 경우 관리·감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영어학원 교사로 일하는 팔렛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한국 내 국제입양 허

용’ 민원을 제기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자격을 갖췄다면 국내 보호 아동을 입양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 1월엔 주한영국대사관으로부터 “팔렛이 앞으로 영국에 거주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영국 입양법규를 따를 필요도 없다”는 확인도 받았다.

팔렛은 두 기관의 서류를 토대로 다시 입양신청 절차 등을 문의했지만, 입양기관들은 재차 거절했다. 팔렛은 “한국인 부인과 아동이 태어난 한국에 살며 양육하려는 것인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입양 심사조차 받지 못한다니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대구에 사는 미국 군무원 윌리엄스와 부인 이숙(49)씨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다. 부부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미성년자 A씨가 낳은 우주(4가명)군을 3년 3개월째 위탁 보육하고 있다. A씨가 두 사람에게 입양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부부는 정이 든 우주군을 넷째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구청은 “입양기관에 아이를 보내 한국 국적자에게 우선 입양 신청을 받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입양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거주 국제가정이 입양에 성공한 사례는 지난해 11월 데이비드 제(David Jea) 전 주한미국 대사관 영사 부부가 유일하다. 제 전 영사 역시 부모가 친권을 포기한 5살 아기를 4년간 위탁 양육하다가 입양을 시도했지만, 처음엔 거부당했다. 결국 임기가 끝난 후에도 부부가 교대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두 차례 소송을 한 끝에, 3년 반 만에 입양 허가를 받았다.

민지원 변호사는 “사안마다 아이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종합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전문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적격성 심사 등 업무는 지난해 7월 국회가 기존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법·국제입양법으로 제·개정하면서 2025년 7월부터 정부(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입양정책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말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관련 시행령안을 내놓기로 했다. 손성배 기자

“개학 하자마자 학생·교사 14명 확진”... 학교 코로나 비상

폭염에 마스크 꺼리고 에어컨 사용 “실제 감염 인원 더 많을 것” 우려도

인천 A고등학교 교장은 요즘 코로나19 확산을 막느라 신경이 곤두서있다. 2학기 개학 날인 12일 학생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결석했는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6일 확진자 수가 12명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그는 “확진자가 이 정도이니 실제 감염된 인원은 더 많을 수 있다”며 “교사 2명도 코로나로 병가를 낸 상태인데, 전체 10% 수준인 6명이 넘어가면 수업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걱정했다. 이 학교에선 현재 교내에선 마스크를 쓰고, 하루 2회 이상 교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개학을 맞은 학교들이 긴장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동

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교내 감염이 빠르게 늘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폭염으로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을 꺼리고, 밀폐된 교실에서 에어컨을 사용한다는 점도 방역을 어렵게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수능을 80여일 앞둔 수험생들은 걱정이 더 크다. 지난 13일 개학한 한 고3 학생은 “온종일 창문이 닫혀 있어서 환기를 하려고 하니, 몇몇 친구가 답답하고 불만을 표시하더라”며 “학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고3 학생은 “학교에서(다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급식실 칸막이도 다시 설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는 16일 코로나19 감염 학생은 고열과 호흡기 증상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말고,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할 것을 권고했다. 이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각 교육청도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 교육청은 2학기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학교 방역 예산(약 25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학급당 5만원씩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인천시교육청은 2개교 이상 집단 감염 발생 시 ‘학교유행경보제’를 발령해 대응하기로 했다.

학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산과 행정 지원을 선제적으로 강화해달라는 입장이다.

한 고등학교 교장은 “팬데믹 시기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방역 관련 예산은 마스크만 사면 끝”이라며 “학교가 예방 차원에서 검사 키트와 칸막이 등을 마련하려면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서지원 기자



부산행 KTX 탈선... 열차 연착에 역마다 북새통

■ 동대구역에서 신경주역으로 가던 KTX 산천 하행열차가 18일 오후 4시 38분쯤 대구 수성구 고모역 인근을 지나던 중 바퀴 1개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로 멈췄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복구작업이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경부선 열차들은 1개 선로로 양방향 운행하거나 우회 운행했다. ■ 휴일 이용객들이 무더위 속 지연 운행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뉴스스·연합뉴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아기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동물 사진 | 기념일 사진

한국에서 유명한 셀프포토 스튜디오가 6월에 센터빌 오픈했습니다!

“나만의 방 안에서 그 누구 눈치 안보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셀프 포토 스튜디오에 환영합니다”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온라인 예약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www.Selfotostudios.com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8월 HOT 리스팅**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집니다.

비엔나 타운홈
방3+와3+차고2
2001년, 2100sf
젤로스로드 던로딩 메트로
도보로 5분거리
\$97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와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와3, 차고2 **\$80~\$85만불대**

센터빌
타운홈 방3+와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와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와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

임대

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방1
임대: 여학생 환영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우리말 바꾸기

‘한여름’은 왜 붙여 쓰일까?

다음 중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은?
 ㄱ. 한여름 ㄴ. 지난여름 ㄷ. 올봄 ㄹ. 이번달
 더위가 한창인 여름을 나타내는 ‘한여름’은 붙여 쓰는 게 맞다. ‘한’이 계절과 결합해 한창이란 뜻을 나타낼 때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한봄, 한가을, 한겨울’ 등이 이런 예다. 지나간 여름을 나타내는 ‘ㄴ. 지난여름’은 띄어 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붙여 쓴다. 이처럼 ‘지난’이 지나간 계절이나 시간을 나타낼 때는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 본다. ‘지난봄, 지난가을, 지난겨울’이 그렇다. ‘지난주, 지난달, 지난해, 지난밤, 지난날’도 마찬가지다. ‘지난 추억’ ‘지난 일’ 등은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띄어 쓴다.
 올해 봄을 나타내는 ‘ㄷ. 올봄’도 하나의 단어다. 올해를 뜻하는 ‘올’이 계절과 결합할 때는 한 단어가 된다. 즉 ‘올여름, 올가을, 올겨울’이 된다. ‘올 농사, 올 삼월’처럼 계절이 아닌 날달일이 올 경우에는 한 단어로 보지 않는다.
 ‘지난달’이 하나의 단어이므로 ‘ㄹ. 이번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이 들어가는 말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적자지만 이번 달에는 흑자다”처럼 한 문장에서 ‘지난달’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이 같이 나오는 경우 헛갈린다. 이때는 ‘지난’이 붙은 것만 한 단어로 생각하면 된다. 정답은 ‘ㄹ. 이번달’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북한 이탈주민의 날 지정 잘한 일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금년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했고, 행정안전부가 5월 21일 관련 개정안을 공포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맺어진 지 4일 뒤, 북한군 15사단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안장식 대위가 비 무장지대를 넘었다. 첫 번째 북한 이탈주민이었다. 그 후 71년이 지난 지금,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수는 약 3만4000명까지 늘었다.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포용과 정착 지원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기념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날이었다. 한국에서는 금년부터 매년 7월 14일을 공식적으로 ‘한국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은 1997년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7월 14일은 북한이탈 주민을 기념하고 지원하기 위한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알려진 7월 14일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다. 핵심 주제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포용과 지원, 모든 북한 주민의 인권, 앞으로 통일될 남북한의 정체성 함양이다. 북한 이탈주민들은 북한 생활의 가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권의 중요성과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일깨워 주었다.
 ‘고난의 행군’ 때 까지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정착한 이탈주민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예전 보다 훨씬 더 많은 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탈주민들을 한국에 정착 시켜서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

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다.
 1999년에 ‘하나원’으로 널리 알려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도 설립되었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정착을 담당하는 한국 통일부 산하 기관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북한 이탈주민들은 한국 정부 기관의 합동 조사를 받은 후 하나원으로 보내진다. 한국에 새로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보통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한국 정착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 교육 과정의 목표는 주로 세가지다: 첫째, 최첨단 의료 시설과 능력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통해 새로 정착한 이탈주민들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이다. 하나원은 치료로부터 산부인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료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둘째, 북한의 독재 아래 후진 경제에 살다 한국에 새로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들이 한국 사회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 셋째, 한국에서 어떤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교육한다. 이에 따라 하나원은 헤어-네일아트, 메이크업, 피부미용, 관광-호텔 분야나 간호와 요양, 요리-제빵, 전자 기초, 기계 조립, 봉제-수선-세탁 등 전분야의 다양한 진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기본 적인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도 배울 수 있다. 북한 이탈주민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수업을 수강한 후 시험을 보고 시험에 합격할 경우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사회에 진출하여 직장생활도 하면서 적응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한국 통일부는 1998년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정착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34,121 명이 한국에 정착했다고 밝혔다. 그들 중 여성은 24,571명, 남성은 9,550명으로 여성이 72%다.
 북한 이탈주민들은 북한에 살았을 때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졌다. 북한 이탈주민들은 80%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했다. 북한이탈주민 80%가 주택, 직장, 교육, 경제, 보건 상황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주로 낮은 성별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독재, 탄압과 통제를 탈출하여 자유와 기회를 찾기 위해 한국에 정착한 것이다. 물론 한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들 중 외교관과 해외 무역 관계자들, 대학교수들, 과학자들, 인민군 장교들, 보안국 장교들을 포함한 고위 탈북자들도 많다. 북한에서 지식인, 고위 관리, 군인, 광부, 노동자, 어부, 정치범등 어떤 사회적 지위 였든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 세계 여론과 언론에 김씨 일가에 의한 비인간적 범죄와 다른 사악한 인권유린을 폭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10 년전 보고서를 펴낸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나 또 다른 유엔 및 비정부 기관을 통해 증언 하며 김씨 일가 정권에 의한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폭로한 용감한 사람들 덕분에 국제사회는 북한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의 날’은 그들의 유산과 용기, 그리고 외국에 정착하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기념하는 것이다.

독자마당

2028년 LA올림픽



2028년 하계올림픽은 LA에서 열린다. LA는 1984년 제23회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지만 당시 공산권이 대거 불참한 반쪽 올림픽이었다.
 LA올림픽이 반쪽이 된 것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후유증 때문이다. 서방 국가들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해 모스크바 올림픽에 대거 불참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들은 LA올림픽에 불참했다.
 두 차례의 반쪽 올림픽을 끝낸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었다. 당시에도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들은 서울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면서 만약 6개 종목의 개최지를 북한에 넘겨주면 참가를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이에 앞장 선 나라가 동독이었다. 서울올림픽 1년반 전인 1987년3월 동독의 에발트

트 체육장관은 서울을 방문, 박세직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제안을 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한국말로 “당신은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나에게 얘기하는 것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당황한 동독 측 통역 여성은 한국어로 “이 인간은 동독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간인데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라고 따졌다. 그 순간 모두들 속으

로 웃음이 빵 터졌다. 사태를 파악한 에발트 장관은 오히려 동독으로 돌아가면 사회주의 국가들에 서울올림픽 참가를 독려했다고 약속했다.
 그후 동독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들이 참가를 통보해왔다. 에발트는 공산권에서 정말로 ‘중요한 인간’이었다. 김일성은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으로 거리는는 거지들이 득실거리는 형편없는 나라라고 공산국가들에게 선전했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에 참가한 공산국가 선수들은 이것이 거짓 선전임을 알 수 있었다. 필자는 당시 서울올림픽 조직위에 파견되어 전세계 국가의 올림픽 참가를 독려하는 총 책임자였다. LA에서 올림픽이 다시 열린다니 감개무량하다.
 박대원 전 외교부대사-LA거주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송상협
CLTC, 재정보험 전문가

Q 이제는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에 대비해야

▶문= 저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65세 시니어입니다. 최근 경제 뉴스에서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저에게 이러한 경제 상황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답= 최근 뉴스를 종합해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는 9월 18일에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0.25% 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강력히 시사하고 있으며, 최대 0.5%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기 부양

을 위해 필요하다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 횟수를 두 번 또는 최대 세 번까지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고금리 시대가 지나고 저금리 시대가 시작되면 경기 침체는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높은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경기 침체는 다양한 이유로 시작될 수 있지만, 소비 위축이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줄어들면 기업의 매출과 수익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기업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매출이 줄어들면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

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올해 4월부터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들에서 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자산의 감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29년 대공황과 2000년 닷컴 버블을 들 수 있습니다. 대공황 기간 동안 주가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신저점을 6번이나 기록했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주가가 3년 동안 고점 대비 78%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수적인 투자처로 자산을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시중의 저축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나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 자산의 일부를 헤지 플랜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지는 보유 자산의 하락 위험을 보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401(k)나 TSP와 같은 은퇴 계좌를 통해 자산을 관리 중이거나 은행에 목돈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의 일부를 경기 침체나 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지 않는 피난처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난처는 원금 손실이 없고, 계약 기간 동안 고정 이자율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상현
노동법/상법 변호사

Q 단발성 성희롱 발언

▶문= 최근 직장 동료가 성희롱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매니저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몰랐던 일이고 단발성으로 그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을 덮으려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발언은 어느 정도까지 용인되나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고용주는 인종, 종교, 출신 국가, 장애, 성별, 나이 등을 이유로 직원을 괴롭힐 수 없으며, 이러한 괴롭힘에는 성희롱이 포함됩니다. 괴롭힘이라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괴롭힘이 '심각'하거나 '만연'하게 적대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괴롭힘의 행위가 심각하다면 빈도가 잦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심각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해당 행위가 직장 내에 만연하여 자주 발생한다면 이 역시 문제가 됩니다.

해당 행위가 심각하거나 만연한지의 여부는 그러한 행위가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 언어로만 또는 행위를 동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신체적 위협이 동반되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토대

로 판단합니다. 가령, 신체 접촉을 동반하는 성희롱은 단 한 차례라 하더라도 심각한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에 의해 말로만 이루어지는 성희롱 역시 그러한 발언이 수시로 발생한다면 개별 발언의 수위가 다소 낮더라도 만연한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에서 단 한차례 흑인을 비하하는 발언인 N-Word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단 한차례의 발언이라도 노동자에게 심각한 차별적 근

무 환경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여 하급 법원에 해당 사건의 소송 재개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비록 단 한차례의 인종 비하 발언이지만, 그 발언이 나오기까지 직장 내에 여러 가지 차별적 환경들이 조성되고 뒷받침되었을 수 있다는 요지의 판례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산술적으로 몇 차례의 차별적 발언이 있었는지를 계산하여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양한 증거와 증언이 뒷받침된다면 해당 발언의 횟수가 많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심각한 괴롭힘 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재혁
부동산 에이전트

Q 7, 8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

▶문= 7, 8월 남가주 주택 시장 상황이 궁금합니다.

▶답= 8월 둘째 주부터 모기지 이자율이 기존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대략 6.25-6.5%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내년 초에 안정적으로 5%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 지난한달간 대략 10% 미만의 가격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한 달간 셀러들이 경쟁적으로 매물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이에 따른 효과가 미리 시장에

반영되는 느낌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본다면 특히 서부지역의 거래량이 증가했고 남가주의 경우 인랜드를 포함한 대도시권의 모빌리티를 포함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 증대로 해당 지역의 10% 정도의 호가의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은 구입을 늦추고 있고 매매 기간이 길어지는 고가주택을 포함한 지역별로 리스팅 기간도 3-4개월 정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레드핀에 따르면 6월 중에 캔슬된 거래가 15%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경기 침체와 여러 영향

으로 텍스 보고가 지연되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가격이오를 가능성보다는 떨어진다는 추세로 바이어와 셀러 모두 이에 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NAR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2년간 주택시장의 변화 요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7백만의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고 3백만 명이 결혼과 1백5십만의 이혼이 예상되고 7백만 명이 은퇴연령인 65세가 되고 4백만이 사망하고 4백만의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5천만의 이직 인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단순히 보자면 앞으로는 매물의 증가와 더불어 이자율의 하락과 실질적인 수요의 증가로 바이어층이 유지된다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구입이 지체되면서 렌트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유지가 될 전망이며 대규모 신축 아파트의 경우 렌트비 하락을 주도하겠지만 대도시의 가족단위 렌트 매물의 부족은 단기간 해소되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정부의 실질적인 주택관련 정책은 감당 가능한 렌트용과 주택 구입의 증가로 초점을 맞추겠지만 대책의 부재로 현실화되는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5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완벽한 영어** 와 **풍부한 재판 경험** 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즈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즈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FEBC-KOREA CHILDREN'S CHOIR
PATRIOTIC CONCERT**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나라사랑음악회

2024년 8월 23일(금) 오후 8시

**THE KENNEDY CENTER
CONCERT HALL**

미리 참가 등록하신 분들은 콘서트 당일(8/23)
Kennedy Center Concert Hall 앞에서 극동방송 직원들이 오후 6시부터
이름 확인 (운전면허증 또는 포토 아이디) 후 오는 순서대로 좋은 좌석표 드립니다.

복장 : 어른 - 정장 / 어린이 - 자유복장 / 현역 군인과 예비역 분들은 제복 착용

문의

703-467-8100 617-678-5104

| 홍희경 장르 극동방송미동부 운영위원장 | 심보영 목사 나라사랑 음악회 준비위원

공연 안내

본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메일, 혹은 QR코드를 통해 무료 티켓 신청 가능합니다.

ticket@febc.net



QR CODE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경제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Monday, August 19, 2024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F.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일·중보다 못한 한국의 주주환원 소액주주 권한 강화 필요

주주자본주의 과잉의 미국, 결핍의 한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 지배구조는 대단히 중요하다. 지배구조는 기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주와 경영진, 채권자, 직원 등의 역할 관계를 총칭하는 단어다. 기업이 사업에 자원을 배분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벌어들인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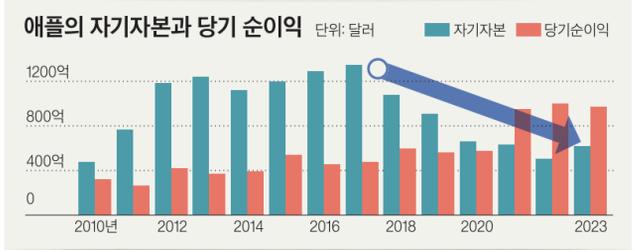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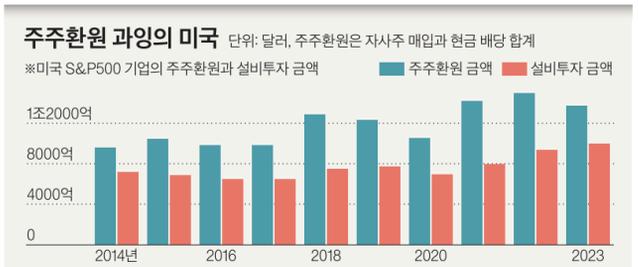
중종 신흥국 투자에서 낭패를 보는 이유도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지배구조 때문이다. 2007~08년 한국에서는 중국 증시 투자 붐이 있었다. 당시 한국 투자자는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주요 2개국(G2)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중국 주식 투자에 투영했다. 떠오르는 국가에 재산을 묻어둬 성장의 수혜를 누리려 했다. '중국이 고성장할 것'이라는 판단은 결과적으로 옳았다. 한국인의 투자 붐 이후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10.8% 성장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명목 GDP는 연평균 4.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 이익 증가율도 중국이 미국보다 높았다.

그렇지만 중국 증시의 장기 성과는 초라했다. 2007년 6000포인트를 넘나들었던 상해종합지수는 요즘 3000포인트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다. 반면 미국 증시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제장을 구가하고 있다. 지배구조의 차이가 중국과 미국의 차이를 만들었다. 고성장하는 국가의 기업은 돈을 벌 기회가 많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가 주주 친

화적으로 쓰여야 주가가 오를 수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강화되고 있는 각종 좌클릭 정책은 주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빅테크에서 사교육에 이르기까지 온갖 영역에서 국가의 규제가 강화됐고, 이런 기조는 '공동 부유'라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표현됐다. 자신의 경제활동 방식을 정하는 건 중국인의 권리이지만, 이런 일련의 변화는 주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동했다.

미국 기업, 이익 즉각 주주에게로
한국 경제가 요즘보다 훨씬 역동적이었던 1980~90년대 주식시장의 성과가 부진했던 이유도 중국과 비슷하다. 당시 코스피는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 국면에서 반짝 레벨업을 이뤘을 뿐 나머지 시기는 500~1000포인트의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권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가 상징하는 정치권력의 전환, 3대 재벌 중 하나였던 대우그룹 파산으로 대표되는 분식회계, 지배주주의 횡포를 견제할 수 없었던 취약한 주주권 등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 지배구조가 취약할 때 성장은 투자자를 배반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미국 증시의 주주 친화적 풍토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10년 동안 미국 S&P500 기업은 자사주 매입으로 6조 7000억 달러를 썼고, 현금 배당으로 5조 달러를 지급하면서 총 11조 7000억



미국 주요 상장 종목 최대주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맥도널드	스타벅스
1	8.9 뱅크	8.6 뱅크	8.6 뱅크	8.4 뱅크	9.0 제프 베이조스	9.5 뱅크	9.5 뱅크
2	7.3 블랙록	6.8 블랙록	7.4 블랙록	7.0 블랙록	7.5 뱅크	7.2 블랙록	6.9 블랙록
3	4.0 스테이트 스트리트	5.1 버크셔 해서웨이	4.6 피델리티	3.8 피델리티	6.0 블랙록	4.8 스테이트 스트리트	4.0 스테이트 스트리트
4	3.3 캐피탈 그룹	3.8 스테이트 스트리트	3.6 스테이트 스트리트	3.8 스테이트 스트리트	3.3 스테이트 스트리트	2.3 JP모건	2.4 모건 스탠리
5	2.9 피델리티	2.0 지오드 캐피탈	3.5 젠슨 황	2.2 지오드 캐피탈	3.1 피델리티	2.1 뱅크 오브 아메리카	2.0 지오드 캐피탈

자료: 블룸버그

달러를 주주에게 돌려줬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S&P500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누계 14조 6000억 달러의 80%에 달하는 규모이고, 설비 투자액(10조 달러)을 넘어선다고 있다. 특히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우

량 기업의 주주환원은 훨씬 더 공격적이다.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7363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과 현금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돌려줬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2면 '주주환원'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노승훈 Robinson S. Rown 전직 검사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e@rowepllc.com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변호사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www.rowepllc.com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FAX 301-770-4711

운을 불러온 엔비디아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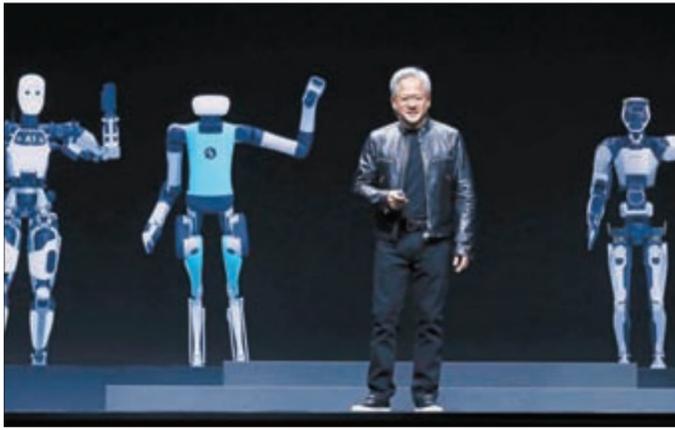
성공한 기업가의 회고에는 늘 운이 좋았다는 겸손한 언급이 빠지지 않는다. 한국의 1세대 기업가들이었던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이 그랬고, 벤처신화를 쓴 오늘의 젊은 기업인들도 사업의 성공에 운이 중요했다고 이야기한다. 혁신의 아이콘인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도,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운이 좋았다는 언급을 자주 한다. 기막힌 시점에 귀인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말 뜻하지 않게 갑자기 시장이 확 열리기도 한다. 정말 운이 좋아야 성공하는 것일까.

운으로 말하자면 엔비디아의 젠슨 황에게 찾아온 뜻밖의 행운만 한 게 없다. 젠슨 황은 1993년 엔비디아를 창업한 이후 집요하게 그래픽 정보처리 기술 한 가지에 집중해서 역량을 키워왔다. 주력 제품은 CPU보다 기능이 단순하면서 오로지 게임의 그래픽 정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특화된 그래픽 칩이었다. 1997년 RIVA 128 버전을 내놓았고, 시장에서 제법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후에도 집요하게 성능을 개선해나갔고, 1999년 GeForce 256 제품을 내놓으면서부터는 그래픽 칩이라는 용어 대신 GPU(Graphic Processing Unit)라는 좀 더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상당히 성능이 개선된 GTX 580이라는 GPU를 내놓았다.

달러닝 원조가 선택한 엔비디아

처음엔 단순 그래픽칩으로 시작 SW 플랫폼 구축, AI 생태계 장악

그러던 중 2012년 뜻하지 않던 결정적인 운이 찾아왔다. 인공지능의 성능을 겨루는 이미지넷 대회에 캐나다의 제프리 힌튼 교수팀이 출전했는데, 바로 이들이 행운을 가져다준 주인공이었다. 힌튼 팀의 팀원이었던 박사과정 학생 알렉스 크레체프스키가 답러닝에 필요한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GTX 580 칩을 사용하고 제안했다. 힌튼은 알렉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팀의 인공지능 모델을 '알렉스넷(AlexNet)'이라고 이름 지었다. 출전 결과 2위 팀과 10% 이상 차이나는 뛰어난 정확도를 보이면서 우승하였고, 답러닝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바로 이때부터 엔비디아의 GPU는 PC방의 컴퓨터 속에서 게임 그래픽 정보나 처리해준던 단순한 부품의 역할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 가장 중요한 물리적 인프라로 떠올랐다. 젠슨 황의 입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운이 제 발로 찾아온 격이고, 덕분에 세계 10위권 부자의 위치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젠슨 황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알렉스넷이라는 행운 덕에 엔비디아가 완전히 탈바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엔비디아에게 우연히 찾아왔던 바로 그 행운의 손길을 만나지 못해 사라져간 기술과 기업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가 지난 6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컴퓨텍스 2024 전시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가들이 부지기수다.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운

결국 성공의 비밀은 운일까? 한마디로 답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 운도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법이다. GPU의 성능을 높여가던 2000년대 초반, 젠슨 황은 엉뚱하게도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는 생물학 실험실에서 엔비디아의 GPU로 계산을 하고 있는 사례를 접하게 된다. 이처럼 생각지도 못했던 분야에서 본인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몇 년간의 투자 끝에 2006년에 쿠다(Computer Unified Device Architecture, CUDA)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들어 배포하게 된다. 쿠다를 이용하면 각 응용분야에서 빅데

이터로 연산작업을 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이 자신의 용도에 맞게 엔비디아의 GPU를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이때부터 GPU는 여러가지 용도로 쓰이는 범용의 계산칩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플랫폼이 쿠다이다. 쿠다라는 인터페이스가 생기자 수많은 응용분야에서 GPU를 가져다 자신의 용도에 맞게 쓰기 시작했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힌튼 팀의 알렉스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지금은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에 익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회사의 GPU를 쓰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오늘날 GPU 기술에서 엔비

디아가 사실상 독점적 위치를 누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쿠다 플랫폼이 구축한 강력한 생태계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젠슨 황이 쿠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배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알렉스가 GPU를 쓰는 일은 없었을지 모른다. 운이 젠슨 황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젠슨 황이 길을 포장해 운이 걸어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생태계 구축은 엔비디아가 처음

더구나 GPU를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경험을 공유하면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쿠다라는 공유 생태계를 구축한 것은 엔비디아가 처음이었다.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으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막힌 혁신의 아이디어가 탄생할 가능성 역시 높을 수밖에 없었다. 운이 들어올 길을 여러 갈래로 만들어놓은 것과 같다. 운은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은 상투적 표현이 아니라 진실이다. 성공한 기업인들이 한결같이 운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의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운처럼 보였던 일들도 노력한 결과 언젠가는 찾아오기로 예정된 기회였을 뿐이다.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울지를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울 뿐, 운은 정확하게 찾아온다. 이정동 서울대 공대 교수

▶ 1면 '주주환원'에서 이어집니다

이는 같은 기간의 당기순이익의 누계액(6506억 달러)보다 더 큰 규모다. 그 결과 애플의 자기자본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고 있다.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에서 주주환원을 뺀 금액이 유보라는 명목으로 자기자본에 더해지는데, 당기순이익보다 주주환원 규모가 크니 자기자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애플의 자기자본은 2017년 결산기 말 1340억 달러에서 2023년 말에는 621억 달러까지 53% 줄어들었다.

애플보다 더한 회사도 많다. 미국의 우량주 상당수는 아예 자기자본이 마이너스다. 스타벅스와 보잉, 맥도널드 등 S&P500지수에 속해 있는 종목 중 31개가 그렇다. 회계적으로는 부채가

자산보다 큰 완전 자본 잠식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자본 잠식은 적자가 누적되는 부실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S&P500지수에 속한 기업이 부실기업일 리는 없고, 공격적 주주환원이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 애플은 그동안 쌓아놓은 자기자본을 털어서 주주에게 돌려주고 있지만, 스타벅스 등은 벌어들인 이익에 더해 빚까지 내면서 주주환원을 하기에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이다. 이들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 없고, 영업에서 안정적인 현금 유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내부에 부를 쌓아두기보다 주주에게 즉각 돌려주는 선택을 하고 있다.

미국식 주주환원, 한국에 맞지 않아 미국과 같은 주주환원은 우리가 추

구해야 할 모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산업구조가 다르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기업은 미국과 같은 주주환원을 할 수 없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장치 산업이 주력이라 높은 수준의 사내 유보를 유지해야 하기에 미국과 같은 주주환원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또한 당기순이익을 넘어서는 과도한 주주환원은 본받기보다는 오히려 경계해야 할 관행이다.

그렇지만 한국 상장사의 주주환원이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미흡하다는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역시 지배구조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일본과 중국과 비교해봐도 한국 기업의 오너십은 매우 강한 편이다. 일본 기업의 지배구조는 다양하지만, 그래도 대기업 집단에는 오너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일본도 2차 세계대전 때까지는 한국과 비슷한 기업 집단으로서의 재벌과 명확한 소유주가 존재했지만, 패전 이후 일본에 들어온 미국 군정은 재벌을 해체해 버렸다. 일본 재벌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 군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현존하는 일본의 대기업 집단은 자연인으로서의 오너가 존재하지 않고, 기업 간의 상호지분 보유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다. 일본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의 경우도 최대주주가 도요타 자동차기와 도요타 방직 등 도요타 그룹으로 통칭되는 관계사들이다.

한편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국영기업이 많고, 화웨이를 비롯한 주요 민간기업도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상법 개정 따른 주주권 과잉 우려 과도

결과적으로 오히려 불리는 지배주주의 막강한 권한은 한국적 지배구조가 가진 중요한 특징이다. 오히려 경영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 경영 등 오히려 경영이 가진 미덕도 많다. 다만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주주 편향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합병 비율, 물적 분할 후 동시 상장, 우량기업의 헐값 공개매수와 자진 상장폐지 등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너무도 많다.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도 취약한 주주환원 역시 지배주주가 절대다수 지분이 아닌 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한국적 지배구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판단이다.

집을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최적의 집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철저한 검토를 통해 최고의 집을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승경호 추천 매물

<p>상가 임대수입</p> <p>발티모어상업건물(임대수입) 1백1십만불, 1층식당+2층+3층아파트</p>	<p>상가 임대수입</p> <p>DC - 식당입주한 건물 2백6십만불 3000SF 복층, 월순수입 \$11,000</p>	<p>스시 식당</p> <p>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SF 연매상 \$1,058,000</p>	<p>에난데일 최고의 상권 단독건물</p> <p>K-Market 건너편 2500 SF, 식당이나 커피샵, 백주 전문점 하면 좋은자리 임대 문의 바람</p>
<p>상가 임대수입</p> <p>맥클린, 단독건물, 4백5십만불 6,000 SF</p>	<p>상가 임대수입</p> <p>상가 8백만불, 비엔나, 버지니아 연순수입 52만불, 8백만불</p>	<p>Beer & Wine Shop</p> <p>35만불, 주1만8천불 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VA, 조건부 임대계약</p>	<p>DC 유명 델리</p> <p>판매가 55만불</p> <p>주인없이 운영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익 = 주인운영 없이 1만불</p>
<p>Beer & Wine Shop</p> <p>50만불, 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MD, 조건부임대계약</p>		<p>버지니아 상가건물</p> <p>3백10만불</p> <p>1.8에이커 Cap Rate 7%, 입차 5개 연순수입 \$218,000</p>	

주재원, Start-up 회사, 한국공기업,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전문부동산 다량의 기업 성사 기록보유. 미국 전역 가능합니다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워싱턴 최초 부동산 전문신문 '내집장만' 발행인

www.dwellwashington.com

THE SCHNEIDER TEA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식지

성공투자 위해 위험 회피 심리 관리 필요

방어투자 위한 펀드

투자자들은 이익을 볼 때 갖는 '기쁨'보다 손실을 볼 때 오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 행동 금융학에 따르면 손실을 볼 때 느끼는 고통이 이익을 볼 때 느끼는 기쁨에 비해 두 배정도 강도가 세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는 위험 회피 심리를 갖게 된다. 이는 잘못된 심리상태라고 무작정 탓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모두 가진, 매우 극복하기 힘든 본성적, 심리적 결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완전히 기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결과적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 성공투자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꾸준함이다. 꾸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 중의 하나는 이런 부정적 위험회피 심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손실위험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 혹은 방어기제가 있다면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동요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buffered' 펀드는 방어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방어형 펀드 이해의 기초

시중의 대부분의 방어형 펀드는 S&P 500 지수와 연결된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나스닥이나 다른 주요 주가지수들을 활용한 방어형 펀드들도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은 S&P500 지수와 연계된 펀드다.

방어형 펀드는 기본적으로 연계된 해당 지수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방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P500 지수가 10% 내려가면 이 10% 내려간 부분에 대한 손실을 보지 않게 해준다. 방어해주는 폭은 10~15%가 일반적이다. 만약 해당 지수가 이 방어 폭 이상 하락하면 이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가 수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어 폭이 10%인 펀드인 경우 연계된 지수가 15% 하락하면 투자자는 5%로 인한 손실을 감내하는 것이다. 시중에는 손실 폭과 관계없이 100% 손실방어를 약속하는 펀드들도



방어형 펀드나 지수형 연금, 지수연계 투자성 연금 등 모두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분산 기능을 할 수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가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

수 있다. 사고팔기 위해 꼭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펀드의 순자산 가치가 일반 펀드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공시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거래하게 된다. 다만, 펀드가 약속한 방어 폭과 수익 상한선의 결과물을 맞보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방어형 펀드의 활용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복잡한 금융상품이다. 방어기제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배치할 수는 있지만, 잔액의 전부를 이들 펀드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해온 금융상품들이 이전부터도 있었다. 지수형 연금이나 지수연계 투자성 연금 등도 손실 위험에 대한 방어기제를 제공해주는 금융상품들이다.

지수형 연금은 100% 손실을 막아주고, 지수연계 투자성 연금은 방어형 펀드와 비슷하지만 좀 더 넓은 방어 폭을 가진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금융상품을 사는 대신 자산운용 방식 자체를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인 형태로 가져갈 수도 있다. 저마다 장단점이나 제한이 있다.

방어형 펀드나 지수형 연금, 지수연계 투자성 연금 등은 모두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분산 기능을 할 수 있다.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에게는 10~30%의 방어 폭이 의미가 없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상 시장이 하락하면 추가 손실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공격적인 투자자일수록 잠재적 수익에 상한선이 걸리는 것이 불만일 수 있을 것이다. 리스크 분산을 위해 포트폴리오 일부를 이들 금융상품에 배치할 수 있지만, 어디에 얼마를 배치해야 할지는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

어떤 방식이나 금융상품이 좋을지는 투자자 개인의 상황이나 목적, 리스크 성향, 투자 기간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과 투자목적, 리스크 성향과 수용 능력, 투자 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한 순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내게 맞는 투자전략을 설계하고 필요한 금융상품을 적절히 선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에셋대표

방어형 펀드 S&P500 지수와 연계 가장 많아 방어 폭 넓을수록 투자자 양보하는 수익 폭 커 대부분 ETFs 형태로 1년 운용 기간 주의해야

있다. 이런 경우 수익 상한선은 그만큼 미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손실에 대해 보호해주는 대신 지수가 올라갈 경우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캡(cap)이라는 형태로 수익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캡이 15%이면 해당 지수가 20% 올라갔어도 투자자 수익의 최대치는 15%가 되는 것이다.

방어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투자자가 양보해야 하는 수익 폭도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어 폭이 20%인 펀드가 있다면, 수익 상한선은 10%로 낮아지는 식이다.

방어 폭이 낮을수록 수익 상한선은 높게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중에는 수익 상한선이 없는 방어형 펀드들도 있다. 연계된 지수의 상승 폭에 대한 퍼센티지로 투자자 수익을 결정

하거나 일정 비율만큼의 수익을 차감한 나머지로 투자자 수익을 결정해주는 펀드들도 있다.

이들은 해당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유리할 수 있지만 그만큼 방어 폭도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리스크 성향이나 수용능력에 기반을 뒤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방어형 펀드의 '단점'

단점적으로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고려할 내용이 있다. 방어형 펀드는 대부분 ETFs 형태로 나와 있고, 이들은 1년이라는 운용 기간이 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시작점이 다른 펀드들이 있고, 시작점 직전이나 직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1월 1일을 시작점으로 가진 펀드는 12월 31일까지가 운용 기간이고 2월 1일을 시작점으로 가진 펀드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가 운용 기간이다. 약속한 방어 폭이나 수익은 이 기간이 끝나야 적용되고 결정된다.

시작점이 너무 지난 펀드를 사게 되면 애초에 약속한 방어 폭이나 수익 상한선 등이 그만큼 바뀌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익 상한선이 15%이고 1월에 시작한 펀드가 6월까지 10% 올랐다면, 6월 이후 이 펀드를 통해 연말까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5%가 최대치다.

손실에 대한 방어 폭도 시작점의 지수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펀드의 경우 지금 들어가면 일단 10% 손실이 난 후에야 방어 폭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남은 잠재적 수익보다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훨씬 커진 상황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들 펀드는 아무 때고 사고팔

마우리 왓츠 & 단 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nol ~ 하이디 살게로 (Haide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굽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고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703-994-6643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재정설계



클라udia 송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

401(k) 매칭과 귀속 정책

기업 성공과 직원 재정 안정 등 서로 윈윈
복지 혜택 넘어 현재 과세 소득 감소 효과도

근로자들에게 401(k)는 단순한 저축 계좌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한 필수적인 재정 도구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과세 소득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401(k)의 가장 큰 매력은 '고용주 매칭' 제도에 있다. 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최소한 회사 매칭 한도까지는 반드시 불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CalSavers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단일 직원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까지도 이 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제 뉴저지주도 RetireReady NJ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CalSavers와 RetireReady NJ와 같은 주 정부 은퇴 저축 프로그램의 확산은 전역에서 은퇴 준비의 중요성이 날로 점점 더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01(k) 매칭 제도는 기업마다 상이하게 운영된다. 각 기업은 자사의 재정 상황, 인재 유치 전략, 그리고 장기적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매칭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401(k) 매칭 유형과 그 특징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자.

1. 부분 매칭(Partial Match)

가장 흔한 유형으로 "우리 회사는 6%까지 50% 매칭을 해줘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다. 바로 가장 일반적인 '부분 매칭'의 예이다. 부분 매칭은 직원의 기여금(Contribution) 중 일부분을 회사가 매칭하는 방식을 말한다. 만약 당신이 연봉 5만 달러 이하 직원이라면, 급여의 6%인 3000달러를 401(k)에 불입하게 되고, 회사는 그 50%인 1500달러를 매칭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4500달러가 적립되는 것이다. 1500달러의 공짜 돈을 받은 셈이다.

2. 전액 매칭(Full Match)

가장 관대한 유형의 매칭으로 예를 들면 3%까지 100% 매칭이다. 전액 매칭은 직원의 기여금을 100% 매칭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낮은 비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앞서 연봉 5만 달러 직원을 예로 들면, 급여의 3%인 1500달러를 불입하면, 회사도 동일하게 1500달러를 매칭한다. 결과적으로 당신의 401(k)에는 3000달러가 적립되게 된다.

3. 계단식 매칭(Tiered Match)

복잡하지만 매력적인 유형으로 "우리 회사는 처음 3%는 100% 매칭, 그다음 2%는 50% 매칭이에요" 이런 구조는 처음 들으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계단식 매칭은 기여 수준에 따라 매칭 비율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봉 5만 달러인 직원이 5%를 불입하면, 처음 3%(1500달러)에는 100%인 1500달러, 다음 2%(1000달러)에는 50%인 500달러를 매칭한다. 결과적으로 직원은 2500달러를 불입하고, 회사는 2000달러를 불입해 총 4500달러가 401(k)에 적립된다.

4. 기타 독특한 매칭 유형들

몇몇 회사들은 더욱 독특한 매칭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기여 비율과 관계없이 연간 일정 금액(예 2000달러)까지 매칭해 주는 방식인 고정 금액 매칭, 매칭에 연간 최대 금액을 설정(예 50% 매칭, 단 연간 5000달러)까지 매칭해 주는 방식인 연간 한도 설정 매칭, 그 외 회사의 연간 실적에 따라 매칭 비율이 변동되는 이익 공유 기반 매칭,

직원의 나이가 많을수록 매칭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인 연령 기반 매칭 등이 있다.

매칭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귀속(vesting)' 정책이다. 귀속은 매칭된 금액이 실제로 직원의 소유권으로 이전되는 시기를 의미하는데, 즉시 완전 귀속과 점진적 귀속으로 나뉜다. 이 정책에 따라 매칭된 전체 금액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결정되므로, 직원들은 자사의 귀속 정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귀속 정책은 기업이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직원 친화적인 정책인 즉시 완전 귀속을 채택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대신 대부분의 기업은 일정 기간 근속한 직원에게 단계적으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점진적 귀속 방식을 선호한다. 이는 기업의 인재 유지 전략과 직원의 장기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잘 설계된 401(k) 매칭 및 귀속 정책은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조직의 장기적 성공과 개인의 재정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401(k) 매칭 및 귀속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한다면 공인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의 상담하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경제 상식



김세주
Kadence Advisors, LLC

버크셔의 현금보유고

지난해 276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 경신
투자 대신 포트폴리오 균형과 현금 확보

2023년 말 기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가 보유한 애플 주식은 1740억 달러에서 올해 6월 말 84억 달러로 지난 2분기 동안 5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 애플 주식 수도 동기간대 2023년 말 대비 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만 매각한 것은 아니다. 대주주로 있는뱅크오브아메리카도 지난 분기에 7100만 주 정도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과뱅크오브아메리카의 지분을 줄인 배경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해당사들에 문제가 있어서 매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짐작한다.

2011년에 주당 6달러 정도에 매수한뱅크오브아메리카 주식은 2020년 코비드 위기 때 추가 매수해서 40여 달러 정도에 매각했으니 충분한 수익 실현이 일어났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테크놀로지 주식에 대한 투자를 꺼리던 버크셔 해서웨이가 2015년 애플사 주식을 매입 했을 때

외적인 일이라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당시 기준으로 주당 34달러 정도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니 지난 분기 애플 시세로 매도했다면 이 역시 상당한 수익이 실현된 것이다. 장기간 보유했던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해당 기업의 상황이 나빠졌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해당 기업에 약제가 있을 경우 주식 매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결정은 포트폴리오에 균형을 맞추고 현금 확보를 하려는 게 더 큰 이유로 보인다. 이번 주식 매각 이후에도 버크셔의 애플 투자 액수는 840억 달러이며뱅크오브아메리카는 12%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 남아있다.

여기서 버크셔의 투자 방향에 주시하는 투

자자들은 애플이나뱅크오브아메리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버크셔가 수익 실현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더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버크셔의 현금 보유액은 작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2769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다.

주식 매각 자금을 다른 주식으로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금리 인상으로 채권 이자율이 높아져 채권 비중을 높이는 것일 수도 있다.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현금 보유고를 지난 수년간 계속 높이는 이유는 리스크 대비 투자할 마땅한 곳이 없다는 상식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유가 뭐든 가치 투자자들은 신중한 포지셔닝이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lic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풀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게임이론도, 인공지능도 그 머리에서 나왔다



미래에서 온 남자 폰 노이만
이만
아난요 바타차리아 지음
박병철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1956년 미국 백악관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자유의 메달을 받는 노이만. 암 투병 중이던 그는 이듬해 별세했다. (사진 웅진지식하우스)

존 폰 노이만(1903~1957)이라는 이름은 20세기 과학기술사에서 보이지 않는 분야가 드물 정도의 '르네상스맨'이다. 수학에선 순수수학과 응용수학을 두루 섭렵했다. 물리학에선 양자역학·유체동역학·핵물리학·탄도학을 연구했다.

경제학에선 수학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게임이론이, 컴퓨터공학에선 디지털 컴퓨터의 기본 구성방식이 된 폰 노이만 구조가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그가 "특정 상황에서 스스로 재생하고, 자라며, 진화하는 정보처리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한 것이 1948년이었으니, 이미 75년 전 인공지능(AI)·신경과학의 문을 연 선구자다.

영국의 과학저술가인 지은이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21세기는 폰 노이만이 남긴 수많은 업적의 결과라고 지적한다. 인터넷·스마트폰·나노과학은 물론 경제와 경영, 투자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빚지지 않은 분야를 찾기가 힘들 정도다. 심지어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 핵폭탄 '팻맨'의 개발이나 소련과의 핵전쟁 전략에도 관여했다.

그는 역사의 파편에 맞은 망명객이다. 나치에 반대하는 리오시(헝가리어는 성을 앞에, 이름을 뒤에 놓는다)라는 이름의 유대계 헝가리인으로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다. 이 도시는 당시 유대인 지성인들이 많이 살아 친나치 인물이 '주다페스트'(유대인+부다페스트)로 불렀을 정

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독일에서 연구하던 그는 나치 박해를 피해 대서양을 건넜다.

미국에선 프린스턴대 고등연구소(IAS) 교수로 일했다. 앨버트 아인슈타인이 몸담았고, 최근 영화로 더욱 유명해진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소장을 맡았던 IAS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분위기로 미국 과학기술의 전성기를 열었다.

지은이는 IAS의 동료들이 그가 아인슈타인이나 오펜하이머보다 천재성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소개한다. 폰 노이만은 수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문을 새롭게 열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알게 된 독일 출신 경제학자 오스카 모르겐슈테른과 공동 연구해 1944년 펴낸 『게임이론과 경제행동』이 대표적 결과물이다. 그가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게임이론은 20세기 경제학과 경영학을 뿌리째 바꿔놓았고, 정치학·심리학·진화생물학은 물론 법학·사회학·인류학·공학·컴퓨터과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연구되고 있다.

군사 분야에서도 핵전쟁 계획과 최소

손실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폭격 작전 수립에 영향을 줬다. 그는 냉전 시기 보수와 좌파의 한 사람으로서 소련과의 핵대결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인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냉전과 핵전쟁을 비친 블랙코미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러브'에서 '전직 나치로 휠체어에 탄 핵전쟁 전문가로 설정된 스트레인지러브 박사의 모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는 언어와 인문학에서도 조예가 깊었다. 모어인 헝가리어는 물론 영어·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를 구사했으며, 비잔틴사 등 역사에도 해박했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지식과 창의력을 발휘한 '르네상스맨'이었지만 인간적으로는 허술한 점도 적지 않았다.

부유한 사업가 집안 출신인 그는 돈을 마다하지 않았고, 권력자들과 교분을 즐겼다. 값비싼 파티를 즐기면서 수수한 미국인이나 부유층 출신이 아닌 사람을 알잡아보기도 했다. 자신의 이름을 미국식 '존'으로 바꾸면서도, 성에 들어있는 독일어 귀족 칭호인 '폰'은 그대로 남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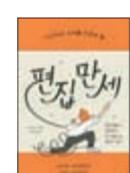
것은 그의 속물근성을 보여주는 일화다. 자신의 부친이 귀족 지위를 돈으로 사면서 얻었던 것인데도 말이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부친이 세상을 떠난 이듬해인 1930년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20세기 광풍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일지도 모른다.

그는 학문과 생각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취미도, 재주도 없었다. 운전이 좋아했지만 서툴렀는지 거의 매년 사고를 내고 차를 바꿔야 했다. 프린스턴의 동료들은 그가 자주 자동차 사고를 낸 곡선도로를 '노이만 코너'로 불렀다. 체스에서 이기는 수학적 방법을 고안했지만 정작 실력은 고만고만했다. 스키를 타러가자는 부인에게 '이혼'을 거론했을 정도로 운동에 질색이었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아인슈타인이나 오펜하이머 외에 그가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선배·동료·제자로서 만나고 교류한 훌륭한 과학자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수학자·논리학자·철학자인 쿠르트 괴델과 게임이론에 입각한 '죄수의 딜레마'로 199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존 내시, 양자전자역학 연구로 1965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파인먼 등과의 일화가 끊이지 등장한다.

프린스턴대 제자이던 영국 수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의 선구자 앨런 튜링의 어린 모습도 생생하다. 튜링이 수학경시대회에서 우승해 부상으로 받은 폰 노이만의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초』 독일어판을 소설 읽듯 술술 읽고 "정말 재미있게 잘 읽었다"는 감상문을 어머니에게 보냈다는 일화는 '천재들의 행진'을 보는 듯하다. 원제 The Man From the Future: The Visionary Life of John von Neumann. 채인택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

구텐베르크 은하계 그 책들의 별별 얘기



편집 만세
리베카 리 지음
한지원 옮김
월북

2007년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은 초판을 1200만부나 찍어 기네스북에 올랐다. 반면 1997년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은 양장본 초판을 겨우 500부 찍었다. 일부 페이지에 저자 이름이 'J. K. 롤링' 대신 '조앤 롤링'으로 인쇄되는 실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책이 비싸게 팔리기도 한다. 롤링의 이 첫 책 원고는 출판사에서 번번이 거절당했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물론 롤링만의 일은 아니다. "작가로서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존 르카레의 『죽은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를 퇴짜 놓은 편집자의 조언이었고, "쓰레기 같고 지루함"은 투고 받은 원고 더미를 검토하기 위해 출판사가 고용한 독자가 윌리엄 골딩의 '내부의 이방인들' 초고에 내린 평가였다. 이 원고는 가져다 읽을 게 필요했던 편집자의 눈에 띈 덕분에 이후 저자의 이력서엔 수정을 거치고 제목을 바꿔 『파리대왕』으로 세상에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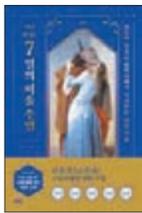
이런 흥미로운 일화가 곳곳에 담긴 이 책 『편집 만세』의 저자는 영국의 20년 경력 편집자이자 펴낸사 편집장. 매클루언이 말한 '구텐베르크 은하계', 즉 대중화와 대량 인쇄 시대의 책 이야기를 편집은 물론 작가·대필작가·에이전트·교정·인쇄·번역·각주·색인·문장부호에다 분서·원고유실·절판 등까지 아우르며 전한다. '블러브'(blurb)라 불리는 책 뒤표지 소개글의 기원도 나오는데, 한국이라면 책 피지 얘기도 다뤘을 법하다.

좋은 글을 더 좋게, 잘 읽히게 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전하는 것이 이 책의 요체일 텐데, 재미는 결가지에서 나온다. 마크 트웨인이 "신은 먼저 비보를 만들었다. 이 건 연습용이었다. 이어서 그는 교정자를 만들었다"고 할 만큼 교정자를 싫어했다거나,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가 맞춤법에 영 서툴렀다가 하는 것도 그렇다. 미국 측 문서를 단독 입수한 영국 언론이 미국식으로 표기된 단어를 모두 영국식으로 고쳐 게재하는 바람에 보도의 진위를 의심받은 사례, 챗GPT의 등장 이전에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해 베스트셀러 등 글의 가독성을 평가한 얘기도 눈에 띈다. 각주를 사랑한다고 밝힌 저자는 본문만 아니라 각주에도 눈길 끄는 얘기를 몇몇 담았다. 원제 How Words Get Good. 이후남 기자

책꽂이



언론자유와 정치철학(손영준 지음, 박영사)=사회적 불통 상태의 만연, 소통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철학적 기반을 탐구했다. 언론자유를 협소한 법률적 해석의 문제로 보는 대신 정치철학의 흐름에서 접근했다. 자유시장주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공화주의, 공동체주의 정치철학을 각각 검토한 다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진단한다.



처음 만나는 7일의 미술 수업(김영숙 지음, 빅피시)=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는 그림 '아테네 학당'으로 유명한 화가 라파엘로는 지나친 사랑을 나누다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한다. 그가 그린 '라 포르나리나'의 모델 마르케타 루티가 연애 상대였다는 것. 일주일간 이탈리아 미술의 정수를 훑는 형식의 이 책 이듬해에서 소개했다.



더러운 페미니즘(심진경 지음, 민음사)="더러운 페미니즘"은 페미니즘 비하 현상을 지적하는 표현이다. 문학평론가인 저자는 여성주의 운동이 생물학적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차별과 억압에 저항할 때, 남성도 새로운 주체성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할 때,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생각을 담은 글과 작품 분석을 모은 평론서.



당신의 언어 나이는 몇 살입니까?(이미숙 지음, 남해의봄날)=특정 단어 등이 생각나지 않고 혀 끝에서만 맴도는 설단현상은 노인 언어의 대표적 특징이라고 한다. 언어병리학자인 저자가 뇌과학 등을 통해 노화와 언어의 관계를 설명하고 노년기 언어의 특징과 경도인지장애 등의 질환을 증상별로 소개한다. 언어능력을 강화하는 실용적 도움 말도 담았다.

페어팩스 타운홈 알렉산드리아 타운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탐 프로듀서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Top 15% Nation Wide Agent by Homesnap

\$875,000
방3, 화3.5, 차고2. 2001년산 End Unit, Super Location, Walk-Out, 새지붕, 2층 새카펫, New Appliances

렌트 \$3,200
방3, 화2.55, 차고1, 전채마루 한인 커뮤니티센터근처, 굿 로케이션, Move-in Ready

\$880,000
방4, 화3, 차고2, Ranch 스타일, 1.12 Acre, All Brick, 새지붕&새 거터, 잘 가꾼 뒷마당 숲이 아름다운 집

\$1,250,000
방 4/ 화 3.5/ 차고2, 코너집, 굿 로케이션, Many Upgraded, Library, Recreation Room, 아름다운 정원, 주인이 잘 관리한 집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매 순간을 걸작 빛듯... 장인정신으로 무대에



뮤지컬 '베르사이의 장미'에서 오스칼을 맡은 옥주현. 5단고음 등 경이로운 가창력을 과시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극중 오스칼로 분한 모습. 최영재 기자, (사진 EMK컴퍼니)

1980년대의 소녀들에게 『베르사이의 장미』는 몹시 특별했다. 1972년 탄생한 일본 순정만화인데, 한 권씩 나오는 해적판을 기다리며 서점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 혁명기 프랑스 귀족들의 화려한 복장도 매력적이었지만, 무엇보다 하얀 군복에 금발머리 휘날리는 ‘오스칼’에 사로잡혔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랑받는 ‘남장여인’이라는 오스칼의 세계는 소녀들의 오묘한 욕망과 내숭의 결정체였다.

그 소녀들이 중년이 된 지금, 오스칼이 만화를 찢고 나왔다. 7월 개막한 화제의 뮤지컬 ‘베르사이의 장미’다. 본고장 일본에서는 1974년 여성들만의 뮤지컬로 유명한 다카라즈카 가극으로 무대화되어 5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의 EMK컴퍼니가 최초로 남녀가 함께 하는 뮤지컬로 창작했다. 오스칼은 세 명의 배우가 번갈아 맡지만, 우렁차게 호령하는 남장여인에 찰떡인 건 역시 최고 스타 옥주현이다.

흰철한 체격과 카리스마 넘치는 발성은 워낙 정평이 났지만, 5단고음 등 초고난도 넘버들로 점철된 ‘옥스칼’의 무대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다른 두 배우와 악보부터 다르다. “창작이니까 배우도 같이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연출님도 대본에 제 모습을 많이 담았다고 하셨지만, 노래도 제 버전은 제 생각이 반영됐어요. 5단고음은 원래 가사들을 삭제하고 넣었는데, 감정이 폭발해 투경을 날려야 되는 장면이거든요. 음악감독님과 의견 나누며 트라이하게 된 건데, 고생스럽지 않아요. 그 감정에 딱 들어맞는 보물찾기를 한 거죠.”

원작은 프랑스혁명을 배경 삼은 6각, 7각의 복잡한 사랑이야기다. 일본판은 ‘오스칼과 앙드레 편’ ‘마리 앙투아네트와 페르젠 편’이 따로 있을 정도로 로맨스에 집중하는데, 한국판은 로맨스는 거들 뿐, 혁명에 방점을 찍은 전혀 다른 무대다. “로맨스에 설레었던 분들은 아쉬울 수 있죠. 사실 개막이 연기될 정도로 오랜 제작기간을 거쳤는데, 조

현하면 앙드레가 옷을 팍 찢어버리고 하룻밤을 보내는 장면도 있었어요.(웃음) 우리 작품은 결국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핸드폰만 보면서 살 수도 있는 세상이지만 남들과 부대끼며 사는 게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연출님이 던지고 싶었다 생각해요.”

옥주현은 2005년 ‘아이디’로 데뷔한 이래 20년간 뮤지컬판을 씬 없이 달려왔다. 20년 전만 해도 뮤지컬 여주인공은 뻘한 공주형 캐릭터가 많았지만, 그는 ‘레베카’의 덴버스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마그리트 등, 늘 허를 찌르는 배역에 도전하며 뮤지컬이 주목하는 여성상을 확장시켜 왔다. 남장여인은 처음이지만, 모든 넘버의 가사가 다 자기 이야기처럼 들릴 정도로 오스칼에 푹 빠져 있었다. “오스칼의 생각과 제 생각이 너무 비슷해요. 연출님도 남들이 뭐라든 뛰어드는 용기가 저와 되게 닮아 보인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도 그렇거든요.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란이 잠깐 있어도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떤 목소리 말인가요. “요즘엔 극장 환경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고 해요. 전시회도 몇백년 전 그림을 보존하기 위해 온도와 습도를 신경 쓰는데, 살아있는 배우들 컨디션도 신경 써 주면 좋겠어요. 가슴 설비도 없는 극장도 있어요. 로포 몇 번 당첨돼서 최상의 컨디션 갖춘 뮤지컬 전용극장 짓는 게 제 소원이죠.”

“유명세 탓에 유독 기대치가 높는데요. “남들의 평가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무대에서 스스로에게 욕하고 싶은 순간을 안 만들려고 해요. 정말 시험 공부하듯이 열심히 해요. 뭔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선 전 정말 지구 끝까지 파거든요.”

그는 예전에 만났을 때보다 부쩍 여유로워 보였다. 최근 방송에서 루머와 악플에 시달렸던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지만, 이전 초탈한 듯했다. 몇해 전 떠들썩했던 ‘친분 캐스팅’ 논란에 대해서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뮤지컬 배우라는 직업에 걸맞는 일을 했을 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가수로 출발했는데 뮤지컬을 그토록 사랑하게 된 계기라면, “2008년 ‘시카고’로 여우주연상을

너무 빨리 받았어요. 자격도 없는데 받은 것 같아 더욱 채찍질하게 됐죠. 근데 제가 빛 갠느라 힘들던 시기가 있었어요. 오지나 혼자밖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공연과 빛 갠느라 생활의 경계에서 이성을 잡고 있기가 너무 힘든 시절이었죠. 죽을까 갠느라 고민하면서도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그 시절을 보냈어요. 지나고 보니 이 무대가 나를 살게 했구나 싶고, 그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됐죠.”

“여배우로서 티켓파워가 독보적이죠. “1등이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나, 오스칼’이란 노래처럼 매 순간마다 난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증명하며 살았을 뿐이죠. 조각가에 비유하길 좋아하는데, 돌을 마치 실크처럼 표현하는 조각가 같은 장인정신으로 공연을 해요. 우리 죽고 나서 남겨지는 게 없으니 매 순간을 걸작으로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일부분을 꼭 떼어내 보여 주는 프레스콜을 싫어해요.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시간으로 쌓아올린 아트를 어떻게 부분 시연으로 맛을 알 수 있나요.”

“친분 캐스팅 같은 구설수는 왜 따라다닐까요.

“선배가 후배를 도와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후배 레슨을 해 줬을 뿐이에요. 좋은 악기를 갖고 있고, 다른 욕심 없이 본업에 진심한 후배라면 누구라도 돕고 싶거든요. 저는 떼땀하지만, 그 당시 일어났던 소란 때문에 내가 정말 갑질을 했나 돌아보게 됐어요. 만일 저도 모르게 저한테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사과하고 싶은데, 그저 바람을 타고 같이 던지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본인을 ‘악플수집가’라고 했는데. “악플러도 다양한데, 지능이 떨어지거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죠. 만나 보면 시간과 수고가 아까워져요.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가끔 너무 마주해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만나야죠. 제가 어느 날 집까지 찾아가갈 수도 있답니다.(웃음)”

“악플이 달릴지 몰라도, ‘순간의 마스터피스’를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그가 멋져 보였다. 누가 뭐라든 옥주현의 장인정신은 무대가 증명하고 있으니.

유주현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www.naturadent.net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invisalign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프렌차이즈 | 비즈니스 매매

주 6일 프렌차이즈
\$320K 인컴 \$1만
페어팩스 버지니아

주 6일 Deli
\$370K 인컴 \$2만
몽고메리 메릴랜드

주 6일 Deli
\$180K 인컴 \$1만
PG 메릴랜드

\$250K 인컴 \$1만

미셸신 케빈신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부자만의 사치? 원룸 살아도 작품 통해 새 세상과 연결돼”

오는 9월은 미술축제의 달이다. 이런 때 초보 컬렉터와 감상자들은 어려운 전문용어를 많이 쓰는 미술계 내부자가 아니면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조언자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이런 조언자 중 하나가 지난해 말 『디어 컬렉터』를 출간해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전 뉴스데스크 아나운서 김지은 MBC 국장이다.

김 국장은 이미 20년 전에 당시 떠오르는 젊은 한국 미술가들 21명을 다룬 책 『시들한 미인』으로 서점가에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서울대 독어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홍익대 예술학과와 미국 크리스티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또한 32년째 월급을 쪼개 컬렉팅을 해오고 있다.



1 미술애호가 아나운서 김지은 MBC 국장과 그의 책 『디어 컬렉터』. 2 책에 소개된 김나경 컬렉터의 집.

김상선 기자, [사진 아트북스]

이건희 컬렉션 공개, 컬렉팅 문화 전환점
『디어 컬렉터』는 국내외 현대미술 컬렉터 21명의 아름다운 집안 사진과 함께 그들의 컬렉팅 철학, 그들이 소장한 작품과 작가들의 미술사적 의미, 소장품들이 컬렉터들에게 개인적으로 갖는 의미 등을 모두 돌아보는 책이다. 기획 계기는 코로나19였다. “그리운 친구들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안부와 함께 ‘내일 죽는다면 오늘 남기고픈 아름다운 장면을 공유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모두 자신들이 수집해온 작품 사진을 보내오더라. 생각해 보니 이 친구들과 짧게는 7년, 길게는 30년 우정을 이어온 배경에 모두 ‘현대미술 중독자’라는 공통의 취향이 있었다고 한다. 모두 부자 컬렉터인 것도 아니다. “뉴욕 백만장자부터 상하이 옥탑방 거주자까지 경제수준은 천차만별이었지만 현대미술이 던지는 ‘질문’을 사랑하며 자신만의 관점을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음은 김 국장과 그의 일문일답.

- 이틀 컬렉터에게 공통점이 있던가요?
“첫째, 작품을 집안 중심에 둔다는 확실한 기준이 있었어요. 일단 작품부터 배치하고 가구 등 나머지 요소를 생각하니 정리돈이 잘 되고 동선과 생활패턴이 간결해집니다. 책이 나온 뒤

독자들에게 ‘집집마다 인테리어가 너무 독특한데 어디 제품이나’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에 뒤늦게 물어봤더니 대부분은 부모님이 쓰시던 것, 버룩시장에서 산 것 등 새로 산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 아니었어요. 지출은 작품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 제각기 다른 눈으로 고른 ‘작품’이 인테리어의 중심이었으니 비슷한 집안 풍경이 없었던 거예요.”

- 또 다른 공통점은요?
“컬렉터인 동시에 큐레이터라는 점입니다. 창의적인 배치를 통해 작품 사이에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데 달인이었어요. 이런 큐레이터적 마인드는 생활 속으로 파고들며, 예컨대 제니 켈러먼이라는 친구는 팬데믹 와중에 화장실을 아이들의 자유구역으로 정해서 마음껏 낙서하게 만들었는데 바스키아(미국의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울고 갈 정도의 명작이 나왔어요. 또 하나는 신진작가의 후원을 아끼지 않고 기부에도 열심이고 예술이라면 발 벗고 나서준다는 것입니다.”

미술 애호가 김지은 아나운서
32년째 월급 쪼개 작품 300점 모아 컬렉터 21명 소개 책 잔잔한 반향
“좋아하고 밀어주고 싶은 작품 수집 변동성 큰 시장에 휘둘리지 말아야”

많은 아웃사이드 아티스트 작품을 주로 모아요. 그 천진한 아름다움에 매료됐고 아웃사이드 아트 페어에 자발적 도슨트 활동도 하면서 예술과 삶을 함께 고양시키고 있어요. 작품 값은 옷이나 외식 몇 번 줄이면 살 수 있는 수준이예요. 원룸에 살아도 작품이 뛰어난 통로를 통해 새로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 슈퍼리치 컬렉터가 아닌 이상 한정된 예산에서 ‘돈이 되는 작품’과 ‘좋아하고 밀어주고 싶은 작가의 작품’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봅니다. 타인의 권유로 마음에 썩 내키지 않지만 값이 오른다고 해서 샀는데 가격이 바닥을 쳐 거래조차 되지 않는 작품을 매일 봐야만 하는 심정.(웃음)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넘게 작품을 모은 컬렉터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현대미술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좋아하고 밀어주고 싶은 작가’의 작품을 사고 그 작가를 끊임 없이 후원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하네요. 시장에 휘둘리지



2

말고 시장을 리드하는 컬렉터가 되려고요.”

- 본인도 미술 컬렉터이신데요.
“첫 월급으로 작품을 구입한 이래 월급의 일정액을 매년 써 왔어요. 어떤 작품은 구입할 때부터 사연이 있기도 하고 어떤 건 소장한 이후 사연이 생기기도 하는 등, 순위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각각의 이유로 모두 사랑합니다. 총 300점 정도 되는데 30% 정도만 자리잡은 작가이고 나머지는 아님니다. 박서보 화백 작품도 단색화가 국제적으로 뜨기 전인 2002년에 산 거예요. 최우람·이주요·레이첼 화이트리드의 작품도 모두 초창기 작품들을 높지 않은 가격에 산 것인데 그들의 작품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과 테이트모던에 있는 걸 보면 뿌듯하죠. 마치 그들의 성장에 일조한 것처럼. 지금도 신진 작가들의 전시를 빠짐없이 다니고 여력이 된다면 소품이라도 꼭 하나 소장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한 번씩 소개하면 어떨까 구상 중입니다.”

“결국 작품이 사람을 모으는 것 아닌지?”
- 지난 20년간 한국의 미술 감상과 컬렉팅 문화가 상당히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이 건희 컬렉션 공개가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비행기 타지 않고도 세계수준의 컬렉션을 볼 수 있었고 컬렉팅의 세계를 압축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컬렉터층이 젊고 두터워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세대 컬렉터들이 수줍고 비밀스러웠다면 요즘 컬렉터들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컬렉팅의 전후를 활발히 소통합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컬렉팅은 국가든 개인이든 ‘자랑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랑질’을 하려면 (미술사)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컬렉터 본인과 미술계에 자양분이 됩니다. 다양한 작가들이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형성되고 있어요. 사람이 작품을 모으는 것 같지만, 결국 작품이 사람을 모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문소영 기자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 개인파산**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DC 건물 리스팅 하실 건물주 분들!

DC 창고 SOLD \$2.5M DC. NoMa Metro 상권	DC 사당센터 SOLD \$2.4M DC. Capital Hill 지역	DC 단독건물 SOLD \$1.5M Benning Rd. 개발지역	DC Mixed-Use SOLD \$1.6M Capital Hill 지역	DC 사당센터 SOLD \$4.5M Popeyes, 연인법 \$32만	DC NW 아파트 SOLD \$1.5M Metro 상권, 5유닛
DC Georgetown SOLD \$1.5M Retail / Residential	DC H Street LEASED 단독건물 Union Station	DC Warehouse SOLD \$6.8M 67,000sf, Industrial	DC Warehouse SOLD \$5.8M 56,000sf, 창고 6에이커	DC Warehouse SOLD \$3.6M 냉장 / 냉동고, 창고	for SALE \$1.8M DC 3유닛 주상복합

703.395.3123

CoSTAR GROUP | POWER BROKER

미셸신 | 케빈신

‘우물 안 골퍼’ 만드는 KLPGA

독보적 꼴찌 화이트삭스 시즌권 가격 10% 인하

올해 미국프로야구(MLB) 독보적인 꼴찌로 최악의 시즌을 치르는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내년 홈 경기 시즌 입장권 가격을 평균 10% 내리기로 했다고 AP 통신이 최근 전했다.

이는 성난 홈 팬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다. 경기마다 입장권을 사는 팬과 달리 한 해 홈경기 티켓을 통째로 사는 시즌 입장권 구매자들은 충성도가 높은 팬이다.

화이트삭스 구단 관계자는 “우리 구단에 충성스러운 시즌 티켓 보유 팬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에 속한 화이트삭스는 14일 현재 29승 92패, 승률 0.240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올렸다.

백리그 30개 구단 중 유일한 2할대 승률 팀이다. 화이트삭스의 승률은 현대 야구 시대에서 1916년 필라델피아 애슬레틱스의 0.235 다음으로 낮다.

화이트삭스는 이달 초에는 아메리칸리그 역대 최다 연패 타이인 21연패 수렁에서 겨우 빠져나오기도 했다. 페드로 그리폴 화이트삭스 감독은 연패 탈출 후 전적 경질됐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오픈(브리티시 여자오픈)이 22일부터 골프 성지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 코스에서 열린다. 2006년까지 금녀의 땅이었던 기념비적인 장소에서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의 일부 선수도 출전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KLPGA투어의 규정 탓에 해외 대회 출전이 원천 봉쇄된 상황이다.

KLPGA 투어 상벌분과위원회 제3장 제15조 제3항(출장정지) 나호 해외 투어 참가규정에는 ‘KLPGA 정규투어 선수는 KLPGA 메이저 대회가 해외 투어와 동일한 기간에 개최될 경우, KLPGA 메이저 대회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AIG 여자오픈이 열리는 기간엔 KLPGA 투어의 메이저 대회인 한화클래식이 열린다. 국내 골프 관계자들은 “만약 이 대회에 나가지 않으면 1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KLPGA 한화 클래식의 총상금은 17억원이다. LPGA AIG 여자 오픈 상금은



KLPGA 투어 박현경·이예원·박지영(왼쪽부터)은 올해 AIG 여자오픈 출전권을 가졌지만 아무도 출전신청을 하지 않았다. AIG 여자오픈 측은 대한골프협회를 통해 세계 랭킹 차순위 선수들에게 출전 제안을 했으나 불이익을 우려, 출전하겠다는 선수가 없었다. [사진 KLPGT]



KLPGA 해외투어 참가 금지 규정 올해엔 골프 성지 ‘올드코스’서 열려
약 12억5000만원이다.

AIG 여자오픈은 말 그대로 모두에게 열린 오픈 대회다. 당연히 KLPGA 투어에도 문호를 개방한다. 세계랭킹 50위 이내, KLPGA 투어 올해 상금랭

킹 2위 이내, 지난해 상금 랭킹 1위라면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KLPGA 투어의 박현경·이예원·박지영 등이 이런 자격을 갖췄다.

만약 이 조건에 맞는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으면 AIG 여자오픈 측은 대한골프협회를 통해 세계랭킹 차순위 선수들에게 출전권을 준다. 그러나 아무도 AIG 여자오픈에 출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한 스포츠 매니지먼트사 관계자는 “선수들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공개적으로는 올드 코스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골프 성지에서 열리는 대회에 나가고 싶지 않은 선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골프 레전드 잭 니클러스



“선수로서 기억되고 싶다면 올드 코스에서 우승해야 한다”고 했다. 골프의 성인 보비 존스는 “내 인생에 다른 기억이 모두 사라지더라도 올드 코스에 대한 기억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타이거 우즈는 “가장 좋아하는 코스가 올드 코스다. 자연이 만든 가장 창의적인 코스”라고 말했다.

KLPGA 투어와는 반대로 일본여자프로골프협회(JLPGA)는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JLPGA 소속 선수가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 출전하면 일본의 국내 대회(3라운드 대회)의 4배에 해당하는 대상 포인트를 준다. 일본 여자투어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는 일본 선수들이 맹활약하고 있다. 올 시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는 후루에 아야카가, US오픈에서는 사소유카가 우승했다. 해외 투어와 교류가 늘어나면서 JLPGA 투어의 자체 경쟁력도 강해졌다.

KLPGA는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열린 유일한 LPGA투어 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비공인 대회’로 규정하면서 선수들의 출전을 막았다. 한국 선수들이 LPGA투어로 진출하는 지름길을 막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LPGA투어 토트 재팬클래식에는 일본 선수 38명이 출전했다. 이나미 모네가 우승하면서 LPGA투어 출전권을 획득했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타이거 우즈가 2022년 세인트앤드루스 올드 코스에서 벌어진 디 오픈 챔피언십에서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구독 문의: 703-281-9660

손흥민 올해 득점에 달렸다, 토트넘서 뭘 시간

EPL 10번째 시즌… 왼쪽 공격수 복귀 “1년 연장 또는 장기 계약 결정될듯” 9시즌 연속 두자릿수 득점도 도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 손흥민(32·사진)이 프리미어리그(EPL)에서 10번째 시즌을 맞는다.

토트넘은 오는 20일 오전 4시(한국 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 파워 스타디움에서 승격 팀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2024-25시즌 EPL 1라운드를 치른다. 2015-16시즌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

은 어드트 EPL에서만 10번째 시즌을 맞는 베테랑이 됐다.

1992년생으로 만 32세인 손흥민은 9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 기록에 도전한다. 기량은 전성기 못지않다. 그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17골을 넣으며 득점 4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던 2021-22시즌 다음으로 많은 득점이었다. 이번 프리 시즌에 치른 공개 친선경기에서도 손흥민은 3골을 넣으며 예열을 마쳤다.

지난 시즌 주로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섰던 손흥민은 새 시즌부터는 주 포지션인 왼쪽 공격수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분머스에서 뛰면서 득점 공동 4위에 올랐던 스트라이커 도미니크 솔라케를 영입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토트넘과 ‘1년 연장’ 또는 ‘장기 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까지다. 단, 구단이 1

년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손흥민과 토트넘은 장기 재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최근 토트넘이 계약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손흥민에게 거액을 주고 재계약을 맺는 건 토트넘 구단에 부담스러운 선택이라는 것이다.

손흥민이 토트넘과 장기 계약을 맺고 팀의 레전드로 남기 위해선 올 시즌 활약이 중요하다.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앞두고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5연패 여부도 관심거리다. 펠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끄는 맨시티는 2020-21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4시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1992년 출범한 EPL에서 4연속 우승을 차지한 건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가 처음이다.

올 시즌도 ‘맨시티 천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 지난 시즌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필 포든과 중원 사령관 케빈 데브라위너 등 주축 선수들이 여전히 건재하다.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를 견제할 팀으로는 아스널이 꼽힌다.

피주영 기자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p>SOLD</p> <p>Bowie</p> <p>\$645,000 싱글홈, 방4, 차고2</p>	<p>UNDER CONTRACT</p> <p>Edgewater</p> <p>\$575,000 싱글홈, 방3, 차2, 0.45에이커</p>	<p>SOLD</p> <p>Rockville</p> <p>\$280,000 콘도</p>	<p>COMING SOON</p> <p>Perry Hall</p> <p>싱글홈, 방3, 차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559,000 타운홈, 방4, 차3, 차고2</p>
<p>UNDER CONTRACT</p> <p>Elkridge</p> <p>\$950,000 싱글홈, 방5, 차3.5, 차고2</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55+ Luxury \$425,000 콘도, 방2, 차2, 1,438sf</p>	<p>UNDER CONTRACT</p> <p>Ellicott City</p> <p>\$475,000 타운홈, 방2, 차2.5, 차고1</p>	<p>COMING SOON</p> <p>Rockville</p> <p>싱글홈, 방5, 차2, 차고2</p>	<p>SOLD</p> <p>Cockeysville</p> <p>\$470,000 싱글홈, 방4, 차2.5</p>

《《《 렌트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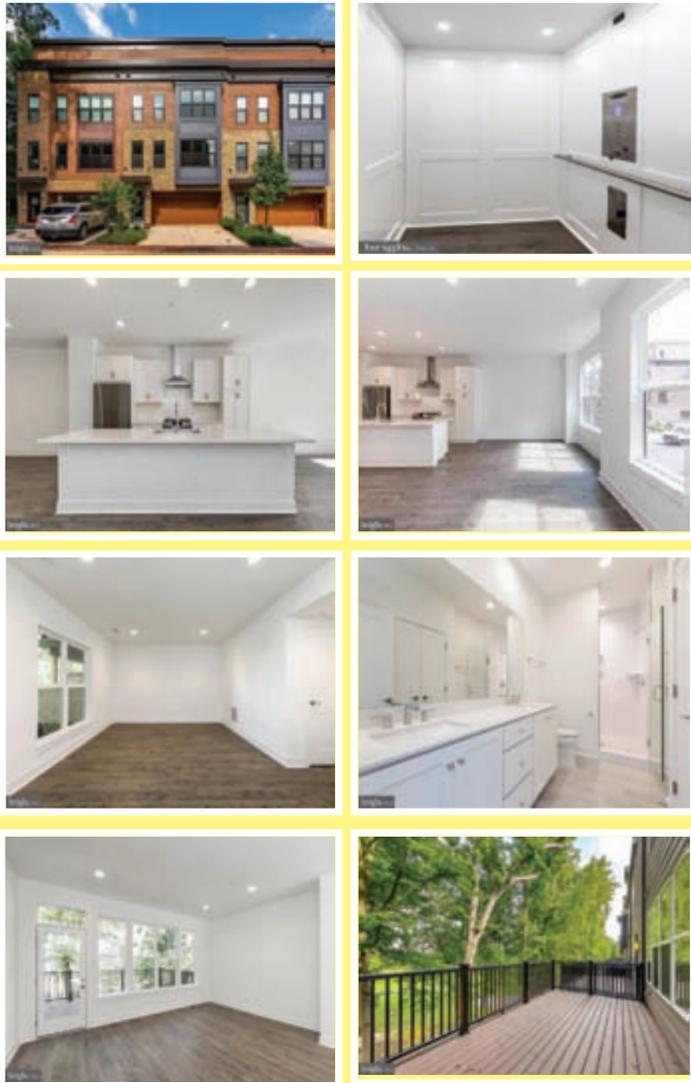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p>Elkridge</p> <p>월 \$2,400 타운홈 방3, 차3</p>	<p>RENTED</p> <p>Sliver Spring</p> <p>월 \$3,500 타운홈</p>	<p>Germantown</p> <p>월 \$2,100 콘도 방2, 차2</p>	<p>Hanover</p> <p>월 \$2,650 타운홈 방3, 차3, 차고1</p>	<p>Germantown</p> <p>월 \$2,000 타운홈 방2, 차3 (지하실 제외)</p>	<p>Glen Burnie</p> <p>월 \$1,750 콘도 방2, 차1</p>
--	---	---	--	---	--

독점 FAIRFAX 타운홈

4층 구조 엘리베이터 시설,
2 Car Garage, 방4, 화장실 5
2013년 새로 지은 럭셔리타운홈,
골프코스 전경 **\$1,335,000**



독점 FAIRFAX 타운홈

방3, 화 2½, 업데이트된 부엌,
밝고 환한집, 새페인트, 나무마루,
NEW DECK, 워아웃베이스먼트 **\$600,000**



독점 ANNANDALE 콘도

완전히 리모델링한 넓고 환하고
깨끗하고 예쁜집, 방3, 화1/1. **\$375,000**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3, 2 Car Garage,
End Unit, Update Kitchen,
새 페인트, 밝고 환한집 **\$549,900**



독점 RESTON 타운홈

리모델링한 넓은 텍과 아주 환한
깨끗하고 예쁜집, 방3, 화1/1. **\$479,9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카툰월례이 THE SOUTH SENSE **식스센스** 금주의주제 신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8월
구
인
광
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25년 융자 경력
제인 최 융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융자/재융자
최저이자율 보장
융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융자/2nd 융자
긴급융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융자, 외국인 융자,
상업용 융자 등
모든 융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슈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이름 순서를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앤틱 한국 수출
관심있는 분**

빈티지 & 앤틱 가구, 전축, 차이나셋트, 정원용품 등
1900-1950 년도 까지 물품들 무역, 수출 원하시는 분
고정 거래처 있으며 현재 월 한 컨테이너 (40')

문의 : Yong Choi 703-626-7370
Manassas, VA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C13



독자가 행복 해진다!!

메릴랜드 지역

직원 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세일즈 구합니다. 경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332-2101(문자요망)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지역, MD-경험많은 Handyman-Part Time Office관리자 -정육부 관리자*Capitol Heights지역, MD -사무보조: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301)333-2209

MD 글렌버니지역 Severna Park 베트남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사무직원(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입고출고 관리
- 시간: 주 48~52시간
-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병원/한방/덴탈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콜럼비아 이중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차정비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우대. 속속도가능. 410-961-3012

1)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Germantown/MD
2)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3) CAD/CAM 파트, 테크니션 구함
4)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직원 구함 (풀타임/경력자 우대) 저먼타운 MD 240-477-5683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컷시티 장수 설렁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케슈어/경력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사시 & Fried Chicken 파트/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엘리컷시티 Cafe June에서 샌드위치 싸실 분 유무경력자, 풀/파트타임 443-386-0515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픽업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컷시티 410-926-3200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기타

픽업바느질 하실분(파트타임) / 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속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차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테이커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건강보험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류델빌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자극: 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방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가 가까움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화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 아름 메트로근처 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주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8-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2. 출입문별도. 부엌, 욕실, 거실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엿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Community Service Clerk (Church): Do clerical assistance for the outreach ministry. Reach out for Mongolian communities for Mongolian communities to find out needs for caring. Do administrative coordination for the community service, food distribution and homeless ministries. Visit locations within Arlington County and its BLS area. 40hrs/week, Tue - Sun. Associate degree in business or equivalency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 Job location: Arlington Assembly of God at 4501 North Pershing Drive, Arlington, VA 22203

애난데일. 시원한 사무실서 파. 풀타임 근무 하실 분. Junpark9@hotmail.com 571-242-3736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력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없어도 Training 하여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인 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분사 디자인실(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무실 경력자우대, Benefit, 영주권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집입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 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키징/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트타임 / 풀타임 직원모집 학생및 유/무경력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서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필수 -1년 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 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디징'을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게재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중앙일보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571-243-4251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급급,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슨톤/ 타이슨스)
경험자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테이커에서 일하실분 구함.
-데이케어 직원/주방보조/간호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품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시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시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알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소 완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
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주세요. 풀타임,파트타임
571-991-4172

한돈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험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전화+text 부탁합니다)
571-365-8303

제과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커보조구함(야간)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네일/마사지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이발사 구합니다.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408-1119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바버 or 미용사, 바디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구함.
703-408-1119

세탁/엘터레이션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베킹, 프레스,
빨래 /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엘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픽업소들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 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 정비/바디샵

▶▶자동차 정비 매케너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너, 존메케너,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리닝)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
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ccdc.edu
www.ccdc.edu

기타 구인/구직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노임 전문 변호사 구함
체불입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 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hr@firs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7 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말아서해주시분
(703) 473 6022.

버지니아에 있는 꽃집에서 디자이너와
헬퍼를 구합니다. 유, 무 경험자 환영
240-393-2773

각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트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여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 모집
토들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애난데일 인쇄회사 풀/ 파트타임 구함.
컴퓨터관리/ 고객마케팅관리 하실분.
신분 무. 재택 NO
E-mail: newsunny77@gmail.com
571-242-3736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 분들 모집입니다.
-최적의 위치·시설 -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 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싱글룸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킴, 단독샤워, 와슈어,
66번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703-489-6926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페어팩스 싱글룸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페어팩스 싱글룸 렌트 \$3,500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밝고 환한집. 880S.F.(넓은 사이즈).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스프링필드 싱글룸 렌트 \$2,700
방4, 화장실2, 주인 잔디 관리, 전체 마루.
703-403-7757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 지하철 근방. (교통/학교 좋은)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앤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3개, 화4개, 2카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관리 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교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음). H-Mart 가깝음. 교통편리.
703-477-3114.

▶▶애난데일 H MART 옆 콘도 렌트
\$2,400 방3개 화장실 2, 유포. 전기만 별도
8월말 입주 가능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 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깝음,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렌트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공개채용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광고·편집 디자인**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자격: - 신입 및 경력
-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종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5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1. 아난데일 한강식당뒤 개인집방 렌트 화장실/입구별도 9/1일 입주가능
2. 타이슨지역 개인집 지하방
703-395-4380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출입문, 샤워, 화장실 별도의 H-Mart, Lotte Market 2분 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 분만 거주하실분.
703-405-9005

▶▶첼트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욕아웃 인테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단독주택 지하방1, 욕실, 세탁기, 거실, 인터넷, rt 50, Parkway 286, H mart 10분 거리, 롯데, Fair Oaks mall, Inova 병원 옆
571-236-0834

Fairfax VA 비엔나전철역 근처 66도로 495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싱글룸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욕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키친, 워시어 드라이어
703-898-3838

Burke H-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회사, 가구 즉시 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아난데일 홈디포 근처 방 렌트 유포
703-598-5719

아난데일 메시아 장로교회 뒤 지하방/유포
703-887-5173

개인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개인 주차 자리에 있습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지역 싱글룸,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2 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 렌트
아난데일 오피스 렌트 (쉐어) 사용공간 룸2개, 라셉션, 화장실, 부속실, 스킨케어, 한 의원, 네일, 병원적합.
703-989-1933(애니)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 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충분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룸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렌블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f., 교통편 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은 Manassas, 병원, 사립문,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 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 car 거라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영원 좋은 위치 싱글룸 위층 방3개, 화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아래층 방2개, 사무실, 화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Catonsville) \$3,200. 방4 화3,1/2
▶703-768-1240

미셸 & 케빈 신 부동산 건물소유하며 비즈니스 하세요! 샵렌터 / 창고,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703-395-3128 / 571-243-5797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립문, 1,500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점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컬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 건물 단독 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 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의 장소입니다
▶571-421-0863

DC. 리퀴 비즈니스 매매 \$190,000 연매상: \$598,000/6일근무/전체 2400/SF 1.2층, B1(공간활용 가능)
▶571-242-3736 (연락주세요)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 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 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썬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웰더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 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 거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신선한 야채 배추, 무, 갓, 알타리 무를 농장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신속 정확하게 공급합니다. 교회, 식당 환영
240-796-0093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 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 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중 / 고 수학과와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서랍장 외...
703-203-5177 (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HD Plus Construction 밀집에서 함께 일할 경험자를 찾습니다. - 피니셔 (페인트, 스테인) - 카펜터 (캐비닛, 코리안 카운터탑 제작) - 프록젝 매니저 (이중언어) 높은 페이와 근무시간 보장 (571)420-5492 / (703)256-5486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 모집
443-542-1200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 (In, Out), 틱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매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자동차/주택/사업체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대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테리어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캐리어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쥘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골드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골드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달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클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팀샴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세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체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달리버리 소양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사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 지가는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밍/전등/히팅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박-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 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 상업,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샤워도어, 자동차문, 식탁유리, 거울장식, 특수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임업/멸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람 들판 잔디 깎기 울타리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생활안내 703-281-9660,1(문자)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조?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벽,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욕실·주방 리모델링 전문
- ▶ 마루·텍·케비넷 샌딩 보수
- ▶ 타일·목수·HoA 지적 신속 수리
- ▶ 핸디맨·플로잉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 ↔ 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ICC인가업체
타주이사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해외이사 ◆ 100% 자체보험으로
시내이사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 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a.edu (213)381-3710

stir crazy; 좀이 쑤서 못견디다

(Mike is visiting his friend Rick in the hospital ...)

(마이크가 병원에 있는 친구 릭을 방문한다 ...)

Mike: Rick how are you feeling?
마이크: 릭 좀 어때?
Rick: I'm out of it.
릭: 좀 정신이 없어.
Mike: Yeah I can tell. Do you want to be alone?
마이크: 그래 그런 것 같네. 혼자 있고 싶어?
Rick: Oh no. I've been alone. I've been flat on my back for two weeks.
릭: 그렇지. 계속 혼자 있었는데. 2주동안 뺨어누워 지냈잖아.

Mike: How much longer will you be cooped up?
마이크: 얼마나 더 이렇게 갇혀있어야 되는 거야?
Rick: The doctor thinks I'll be going home in two or three days.
릭: 의사 말로는 이삼 일 지나면 퇴원할 거래.
Mike: I'll bet it won't come soon enough.
마이크: 내가 장담하는 데 그것도 못 기다리겠군.
Rick: You're right. I'm going stir crazy.
릭: 맞아. 좀이 쑤서 미치겠어.
Mike: Call me when you're ready to go home and I'll

give you a ride.
마이크: 집에 갈 준비가 되면 나한테 전화 해 내가 자동차로 데려다줄게.
Rick: Thanks. I appreciate that. I'll definitely call you if I need a ride.
릭: 고마워.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면 꼭 전화할게.
기억할만한 표현
▶ out of it: 정신이 없다(어리벙벙하다)
"I think I drank too much because I'm out of it." (정

신이 오락가락하는 걸 보니 아마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 flat on (one's) back: 쪽 뺨다 (아프거나 정신을 잃어)
"I was very worried when I saw her flat on her back." (저는 그녀가 쪽 뺨어 누운 걸 보고 아주 걱정이 됐습니다.)
▶ cooped up: (좁은 공간에) 갇혀있다
"We've been cooped up in this car for three hours." (우리는 세 시간 동안 이 차안에 갇혀있었습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가로열쇠

(1)신선한 과일과 채소. ~ 시장 (3)파리의 알에서 나온 애벌레 (5)불어서 소리를 내는 신호용 도구. 사거리에서 교통순경이 ~을 불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6)배부르게 먹음 (8)태어난 날 (9)짙맛이 나는 검붉은 액체 조미료 (10)첫째 가는 큰 부자 (12)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음. 일이 매우 쉬움 (14)욕심을 내어 눈여겨보는 기운. ~을 듣이다 (15)살은 콩을 찌어 덩이를 지어서 띄워 말린 것. 간장, 고추장, 된장 따위를 담글 때 쓰인다 (16)관청에서 관리에게 빌려주어 살도록 지은 집 (17)논이나 밭을 갈아 골을 타서 두둑하게 흙을 쌓아 만든 곳 (18)나무나 풀에 내려 눈같이 된 서리. 단풍 보러 갔다 덕유산에서 만난 ~는 정말 환상적이었다 (20)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움 (22)결혼할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보는 일. 그는 ~ 본 여자에게 훌쩍 반했다 (23)죽은 뒤 저승에서 받는 복. 고인의 ~을 빕니다 (24)남의 작품의 일부를 자기 것인 양 몰래 따서 씬 (26)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눈 (27)푸르고 맑은 시냇물 (28)온갖 종이를 파는 가게

세로열쇠

(1)김장 때 김치의 고명으로 쓰기도 하고 그냥 무쳐 먹기도 하는 해조 (2)사물과 마음이 구분 없이 하나의 근본으로 통합됨. □심□□ (3)굽이굽이 서린 창자. 깊고 깊은 마음속. □□□□ (4)고체나 액체의 내부에 기체가 들어가는 것 (5)가볍고 방정맞게 야단을 피우는 말이나 행동. ~을 떨다 (7)부패한 음식물을 먹으면 큰일납니다 (11)목표물을 향하여 단지면 회전하면서 날아가고 목표물에 맞지 아니하면 되돌아온다 (13)상처 보호, 붕대 고정에 쓰이는 의료보조 비품 (14)썩었던 눈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일 (17)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 주는 표지 (18)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만물을 이롭게 하는 물의 성질을 최고의 이상적인 경지로 삼는 도가의 말. □□약□ (19)아주 환하게 밝은 세상. □□천□ (21)극지방이나 고산 지대에 계속 쌓여 있는 눈 (25)낭떠러지. 무작정/얕만 보고 가지 마라/~에 막힌 강물은/뒤로 돌아 전진한다 (26)절벽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 조금씩 서두르지 마라/~속 격류도 소(沼)에선 쉴 줄 안다(오세영)

스도쿠

	9				1	6	5	
1	5	8	7	6	3	4	9	
	6	3			5	8		
				4		2	3	9
9			6	1				
8			9			7		1
	8				9	1	4	6
4	2							
5	1		3	7	4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2	6	4	7	3	9	1	5
5	7	3	9	8	1	6	2	4
9	4	1	6	5	2	7	8	3
1	9	7	2	3	6	5	4	8
4	8	5	7	1	9	2	3	6
6	3	2	8	4	5	1	7	9
7	1	8	5	6	4	3	9	2
2	6	4	3	9	7	8	5	1
3	5	9	1	2	8	4	6	7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input type="text"/> EXP. DATE: / / month year CVS: <input type="text"/>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애틀랜타
 구인
 일본식당 구인
 *대빵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결에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T.251-968-2525
 256-653-1970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미주 중앙일보는 한인사회의 뉴스와 목소리를 주류사회와 한인 2~3세들에게 전달하고자 영어뉴스 사이트 (Koreadailyus.com)를 출범시켰습니다.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us.srotech.com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형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드신분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구력 단번에 해결. 만성 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 고혈압, 통풍, 근본 원인 치료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남녀공용 성욕 강화제 유희유
 1-213-210-9720/papaaaa.com

Partial & Denture
 풀타임
 N.캐롤라이나주 샬럿 지역
 704.806.3068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로 살면 **Up to 40% 할인**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흡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 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j2v.co.kr
 전립선암 예방 및 치료 효과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7011 Warner Ave #E Huntington Beach CA 92647

-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제품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당뇨 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을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40% ~ 49% 탄수화물 DOWN

1세대 저당 밥솥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